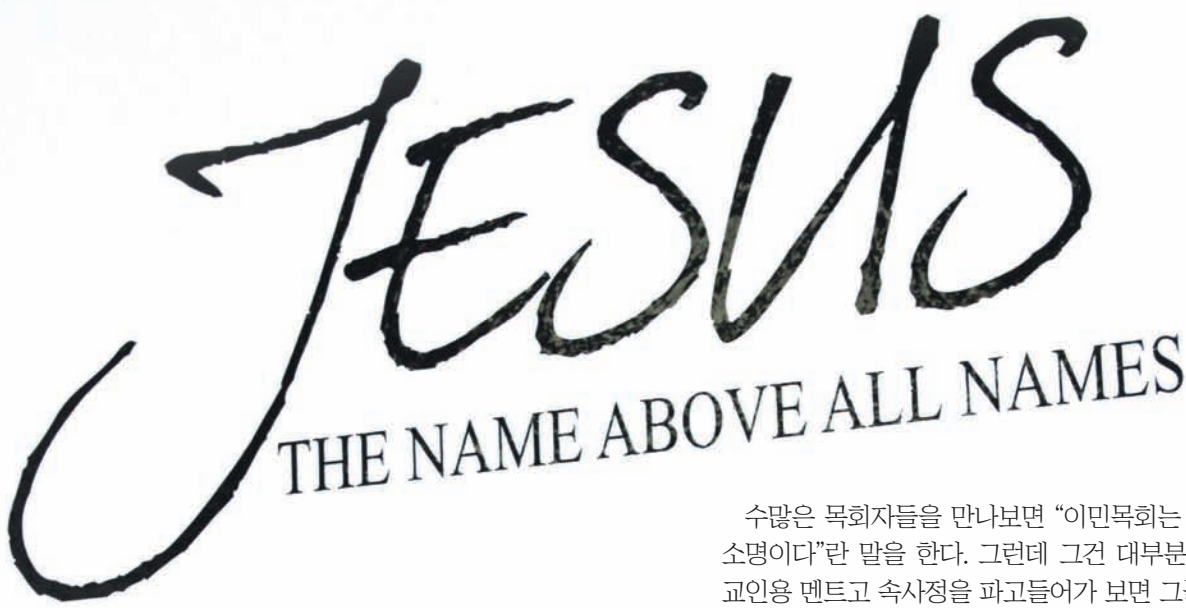




독심 묵회하는 비결 바로 예수 이름

〈오늘도 희망이다 5〉

예수사랑교회 김인구 목사



수많은 묵회자들을 만나보면 “이민묵회는 거룩한 소명이다”란 말을 한다. 그런데 그건 대부분 대(對) 교인용 멘트고 속사정을 파고 들어가 보면 그들도 하나님 앞에 수많은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야곱 같은 존재다.

예수사랑교회 김인구牧사는 10여 년 전 이 교회를 개척해 현재까지 묵회 중이다. 외모에 걸맞게 김 목사의 묵회는 독심 묵회다. 교회 입구 벽에 쓰여 있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Jesus’라는 이름 하나만 믿고 하는 묵회다. 이 교회는 전체 헌금의 30%, 즉 십의 삼조를 선교에 드린다. 북한 선교, 선교사 가정, 지역사회 구제 등이다. 안타깝게도 심삼조를 해도 월만한 교회가 아니다. 묵회자 사례비는 쥐 본 전례가 없는 교회다. 교인이 30명이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달 렌트비부터 고민하는 형편이다.

“제가 뭐 특별히 잘하거나 의로워서 아니고 교인의 십일조, 교회의 심삼조는 우리의 작은 믿음의 표현일 뿐이에요. 지금은 교회 재정이 약간 마이너스지만 이제 플러스가 되면 저도 사례비부터 받을 거예요.”

그의 이민묵회는 씨름의 산물이다. 한국에서 상당한 규모의 기도원을 담임하던 당시 미국의 한인교회에서 청빙이 들어왔다. 자녀 교육과 여러 가지 기대를 걸고 미국에 왔는데 곧 문제가 발생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십일조 설교였다.

“십일조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신앙고백을 담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런데 이런 설교가 부담됐는지 십일조 이야기는 그만하라고 하더라고요. 또 전 복음을 설명하려면 성령님을 말하지 않고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두 가지를 불편하게 여긴 분들이 제동을 건 거죠.”

당장 영주권 스폰서가 걸렸다. 조금 타협해서 영주권을 받은 후에 사임하는 게 상책이었다. 그러나 묵회 양심이 도무지 허락하지 않았다. 그렇게 사임을 결정하자 당장 추방 조치를 취하겠다는 연락이 왔다. 담

답하게 출국을 준비하면서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까 기도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사임했지만 교회 개척을 할 계획이니 영주권 스폰서를 옮기게 해 달라”는 청원서를 이민국에 냈다. 기적적으로 승인이 되었다! 하나님은 이민국에서도 역사하는 분이셨다.

그러나 이민묵회 자체도 어려운데 개척은 어떠랴? 심장마비가 왔다. 지금도 그의 심장에는 예수의 피와 함께 인공 파이프 5개가 심겨져 있다. 수도 없이 울어야 했다. 그런 눈물 속에서 자신의 과거가 회상됐다. 부목사 20명, 간사 30명이 사역하는 대형 기도원의 담임으로 잘 나가던 시기가 있었다. 전문 기사가 운전해 주는 차를 타고 매일 ‘높은 사람들’을 만나며 호텔에서 식사하던 때였다.

“그때 전 묵회자가 아니라 CEO였어요. 만약 그런 태도로 계속 사역했다면 지옥 갈 준비를 해야 했을 겁니다. 지금은 여러 면에서 어렵지만 더 넓은 세계를 보며 진짜 묵회가 무엇인지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가 교회를 사임하고 개척을 했다는 소식이 기도원에서 “이제 돌아오시라”며 러브콜이 들어왔다. 그는 거절했다. 처절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거룩한 소명을 찾았기 때문이다.

그럼 사례비를 못 받는 작은 교회 목사는 어떻게 생존했을까? 자녀들이다. 자녀 교육 때문에 온 미국인데, 바로 그 아들과 딸이 대학 진학을 포기하고 아버지의 묵회를 돕겠다고 나섰다.

“전 자녀들에게 해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아버지죠.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들의 헌신을 반드시 기억해 주실 겁니다. 벌써부터 얼마나 애들이 복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김 목사의 거룩한 씨름은 오늘도 계속된다. 지금 생각해 보면 “이민묵회는 거룩한 소명이란 말이 대 교인용 멘트”라 했던 첫 문단을 취소하고 “이민묵회는 현실의 씨름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거룩한 소명이 맞다”고 시인해야 할 듯싶다. 글·사진 김준형 기자

“예수영매를 따라 광야로 나선 순례자들의”

기독교 대한감리회 빈들교회

담임목사 : 김 용 조

■ 예배시간 안내

주일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기도회 오전 6:00

3210 W. Olympic Blvd., Los Angeles, CA 90006
Tel: (818)518-0033

ASE CERTIFIED 나라정비

나라오토테트 유럽차 전문점 SMOG CHECK

타이어 대리점 **GOODYEAR**

범퍼·도어·바디복원·무료견적·Rent Car

월~금: 8am~6pm, 토: 8am~5pm 1201 S. Western Ave, LA 웨스트관과 12가
323.734.4881

그린카피어

Green M. Wild IMAGE SYSTEMS
 Office and Industry Technology Solutions
 Lease/Rent/Sale/Repair/Toner/Maintenance
 컬러복사/칼라프린트/칼라스캔/팩스/네트워킹
 교회 및 자선, 비영리단체는 특별한 가격
 greenmwild@gmail.com
 TEL: 213 705 7778

bizhub
 KONICA MINOLTA

"PTSA, 미래를 이끌어 갈 비전을 품은 선교적 신학교"

원격교육 100% 승인

ABHE (성서대학교협의회)가 금년 2월 8일부로 본교가 제공하는 신학 학사 (B.A), 교역학 석사 (M.Div.), 크리스찬상담심리 석사 (M.A.C.C.P.), 전 과정의 100% 원격교육을 승인 하였습니다. 이로써 전세계 어디서든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수업을 통하여 미국 연방정부가 승인하는 학위를 취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교 원격교육원만이 지닌 차별화된 특징을 소개합니다.

- 본교가 자체적으로 구축한 가장 효율적이고 최적화된 원격교육 플랫폼 (Platform)으로 운영
- 미주지역 한인신학교 가운데 최초로 ABHE가 승인한 전 과정 100% 원격교육
- Ph.D. 학위 취득 95%의 우수한 원격교육 교수진이 지도
- 최고의 IT 디렉터가 직접 개발하고 관리하는 원격교육 시스템 운용
- 자체 스튜디오 (Studio)에서 직접 촬영하여 편집한 교육 콘텐츠로 교육
- 인터넷 상에서의 교수와 학생 간의 상호 자유로운 소통과 교류를 통한 효율적인 교육
- 미국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는 100% 원격교육을 통하여 무상으로 신학 학사 (B.Th.) 학위 취득 가능
- 본교만의 원격교육의 특징을 경험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본교 원격교육원 웹사이트 online.ptsa.edu 를 직접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격교육원 디렉터 • 박종식 교수, Ph.D. (Email : dspark@ptsa.edu / Tel. 562-926-1023, ext. 315)	Financial Aid 담당자 • Sunny Kim 실장 (Email : FSA@ptsa.edu / Tel. 562-926-1023, ext. 302)	사무실 • 박미현 과장 (Email : office@ptsa.edu / Tel. 562-926-1023, ext. 300)
---	---	--

Financial Aid (Title IV) 승인

조건에 해당되는 분들은 본교에서 무상으로 BA 학위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졸업 후에도 상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 영주권자 혹은 시민권자**
(가정의 소득에 따라 혜택 금액이 결정됩니다.)
- 고등학교 졸업자로 학사 학위가 필요한 분들**
- 마약 관련 범죄 기록이 없는 분들**

위의 사항들에 해당되는 분에게는 본교의 BA과정을 적극 추천합니다.

- 성경과 신학을 좀 더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이해하길 원하는 분
- 직적 훈련을 통해 교양을 쌓으려는 열정이 있는 분
- 생계의 어려움 때문에 학업할 기회를 놓친 분
- 부부가 함께 학업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신 분
- 100% 온라인 수강도 가능

Financial Aid 담당자
• Sunny Kim 실장
(Email : FSA@ptsa.edu / Tel. 562-926-1023, ext. 302)

정회원 ats 정회원 후보 유학생을 위한 I-20 도 발행합니다.

Presbyterian Theological Seminary in America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 장 이상명 박사
 이사장 박성규 목사

15605 Carmeni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 926-1023 / Fax. (562) 926-1025 / office@ptsa.edu



3월 9일 오전 LA기윤실 사무실에서 이 캠페인을 알리는 기자회견담회가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주현 간사, 박문규 대표, 허성규 실행위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기윤실 정직한 세금 보고 캠페인

LA기독교윤리실천운동이 정직한 세금 보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3, 4월 세금 보고 시기를 맞이해 기윤실은 “성경은 십계명을 통해 거짓 증거 하지 말라 하였고, 예수님께서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돌리라고 하셨다”라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정직한 세금 보고

운동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 기윤실은 사전에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교회의 세금보고는 면제되지 만 교역자와 교회 직원, 봉사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바르게 보고되어야 한다”면서 “한인교회는 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하여 관련 수익과 비용을 정확히 밝히고 교인들에게

세금을 정직하게 보고하도록 권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리스도인과 동포들을 향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절세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부정직한 방법의 탈세는 불법”이라며 “탈세의 결과는 국가 재정과 정부 예산 부족으로 이어지고 그 손실은 고스란히 납세자에게 돌아오며 후손들에게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허성규 실행위원(CSU 샌버나디노 회계학 교수)은 “정직한 세금 보고는 교회의 투명한 회계 및 재무와도 직결된다. 특히 이런 문제의 불투명성은 교회의 갈등을 야기하는 주원인이므로 교회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외부 회계 감사를 받는 등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문규 대표는 “누구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라 한인교회가 윤리적인 면에서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 이 캠페인을 전개한다”면서 “정직한 세금 보고를 통해 신뢰를 회복하는 한인 커뮤니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준형 기자



KPCA 서남노회 목사 안수식에서 2명의 여성 목사가 탄생했다.

KPCA 서남노회 여성 목사 2명 임직

KPCA(해외한인장로회) 서남노회 주관으로 2명의 여성 목사가 배출됐다. 좋은소식교회에서 교육 전도사와 EM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이순희, 정경희 전도사가 목사로 안수를 받았다.

3월 7일 주님의빛교회(주혁로 목사) 본당에서 열린 목사 안수식은 서남노회 노회장 이호우 목사의 인도로 안성복 목사(다우니제일교회)가 기도했다. 포이애마 함창단이 특송한 후, 주혁로 목사가 디모데전서 1장 12-15절을 본문으로 “나에게도 직분을 맡기신 주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주 목사는 “목사가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종이 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것이다. 내가 죄인의 과수라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부족함에도 세워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잊지말라”

면서 “구원의 감격과 용서의 감격을 평생 잊지 말라”고 말했다.

이어진 목사안수식에서 김경섭 목사(오렌지카운티영락교회)의 임직자 소개에 이어 이호우 노회장은 임직자 서약식과 안수기도, 악수례 순에 따라 예식을 진행했다. 권면을 전한 정중환 목사(남가주믿음의교회)는 “늘 하나님앞에 결산할 때를 기억하며 주님께 생명을 맡기고 목회에 전념하라”고 전했다.

이상명 목사(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총장)는 “복음대로 살라. 자신의 한계를 정하지 말고 끊임없이 성장하라. 하나님과 늘 연합함으로 생명목회를 감당하라”고 권면했다.

이어 최명환 목사(아름다운동산교회)의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이인규 기자

정요한 목사 <만남, 사랑, 그리고 감사> 펴내

19일 미주베델교회에서 출판기념회

기독언론인 정요한 목사가 <만남, 사랑, 그리고 감사>라는 책을 펴냈다. 이 책은 그가 2013년부터 크리스천헤럴드 신문 지면에서 매주 진행한 인터뷰 <정요한 주필의 만나고 싶었습니다>를 한 데 엮은 것이다. 담임목사, 기독교 단체장, 장로, 신학교 총장, 변호사, 음악인, 정치인, 기업인, 연예인 등 무려 180명이 이 인터뷰에 응했다.

정 목사는 “사람은 만남을 통해 서로 알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 그런 의미를 담아 책 제목을 지었다”고 설명했다.

정 목사는 여의도증권가에서 직장 생활을 하던 중 목회 소명을 받

고 서울신학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합신학대학원을 거쳐 베다니신학교에서 종교교육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한국에서는 중견단선교회 초대총무와 부평 뽕엘장로교회 담임을 지냈다.

미국에는 1998년 이민 와 1999년에 미주베델교회를 개척했으며 코리아나뉴스, 미주동아일보 기사를 거쳐 코리아헤럴드USA 발행인,



정요한 목사

크리스천헤럴드 편집국장, 주필을 역임했다. 현재는 크리스천헤럴드 TV 사장이다. 미주기독언론인협회 회장과 미주복음주의장로회 총회장, 남가주 연세동문문화자회 회장, 미주개혁대학교 교수도 역임한 바 있다. 지난 2015년에는 26편의 글, 31편의 설교, 48편의 칼럼 등을 묶어 ‘나의 비전 나의 미래’라는 책도 펴낸 바 있다.

오는 19일 정 목사가 담임으로 시무하는 미주베델교회에서 출판 감사예배가 있으며 월드미션대학교 총장 송정명 목사가 설교할 예정이다. 문의) 213-422-9191

김준형 기자



남가주중부교협 주최 목회자 탁구대회가 열렸다.

남가주중부교협 목회자 탁구대회 개최

남가주중부교회협의회(회장 최국현 목사)가 3월 12일 남가주벤엘교회(오병익 목사)에서 목회자 탁구대회를 개최하고 중부지역 목회자들의 화합과 건강의 장을 마련했다. 개인전으로 치른 경기에서 1등은 최국현 목사(은혜와진리의교회), 2등은 오병익 목사(남가주

벤엘교회), 3등은 차권희 목사(하늘영광교회)가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는 남가주벤엘교회와 오병익 목사가 점심 식사와 상금 전채를 후원했다. 한편, 중부교회협의회는 중부지역 부활절 연합예배와 8.15 광복절 연합찬양제를 준비 중이다.

이인규 기자

계시록에 나타난 교회 · 선교 · 설교 · 정치윤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성서유니온 미주 서부 사역위원회가 이민교회 안에 요한계시록에 대한 바른 이해와 건전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하며 3월 27일부터 28일까지 선한청지기교회(송병주 목사)에서 LTC(Leadership

Training conference)를 개최한다. 이 컨퍼런스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대한 본 강의와 선택 강의, QT 이론과 실제 등이 마련되며 주강사로 이상명 목사(미주장신대 총장)가 나선다. 또 7명의 강사들이 요한계시록과 정치윤리, 요한계시록과 교회, 요한계시록과 선교, 요한계시록

과 설교, 요한계시록과 구약, 쉽게 읽는 요한계시록, 말씀 묵상과 나눔 등 7개의 선택 강의를 인도한다.

세미나는 27일에는 오후 1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28일에는 오후 5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 진행되며 목회자, 신학생, 평신도 등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 등록비는 1인당 30불, 2명은 50불이다. 문의) 김진국 목사 714-876-8832

지저스 키즈 LA와 OC에서 무료 교사 세미나

어린이 복음화에 앞장서는 지저스 키즈(Jesus kidz)가 무료 교사 세미나를 연다.

LA는 3월 25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올림픽장로교회(302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90010)에서, OC는 4월 1일(토)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홀러튼장로교회(511 S. Brookhurst Rd. Fullerton, CA 92833)에서 각각 세미나가 있다.

어린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필요한 찬양, 설교, 성경공부 자료와 함께 이번에는 부활절 및 어머니주일 크래프트, 창조과학 세미나와 크래프트 자료도 무료로 제공된다.

문의) 213-422-0022

2017년 SU 미주서부 LTC

요한계시록

말씀세미나

성서유니온선교회

성서유니온 미주서부사역위원회는 한국성서유니온 미주서부지부로 이민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교회를 돕고 섬기는 선교기관입니다.

주강사 : 이상명 박사(신약학, 미주 장로회신학대학 총장)

선택특강 : 요한계시록과 교회(박일룡 목사, 신약학, 로렘장로교회 담임)

요한계시록과 정치윤리(민중기 목사, 정치윤리학, 중현선교회 담임)

요한계시록과 선교(방동섭 목사, 선교학, 미주성산교회 담임)

요한계시록과 설교(송병주 목사, 선교학, 선한청지기교회 담임)

요한계시록과 구약(김선익 목사, 구약학, 미주서부장로교회 담임)

읽기 쉬운 요한계시록(이학진 장로, 성경통독원 대표)

말씀묵상과 나눔(QT이론과 실제)(김진국 목사, 목회학, 성서유니온 미주서부사역간사)

일시

3월 27~28일(월, 화)

장소

선한청지기교회(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회비

\$30불(1인), \$50불(2인)

저녁, 교재 제공 (*반 배정과 저녁식사 위해 사전등록을 요합니다.)

문의

Tel:(714)876-8832 김진국 목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LTC 시간표

시간/날짜	3/27(월)	3/28(화)
1:00~1:30	등록/여는 예배 (기도:전인철 목사, 설교:민중기 목사)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시 119:105))
1:40~3:00	말씀 묵상과 나눔 1 (QT 이론과 실제)	
3:10~4:40	말씀 묵상과 나눔 2 (QT 이론과 실제)	
5:00~6:30	선택 특강 1 (6개 강의 중 1 선택)	선택 특강 2 (6개 강의 중 1 선택)
6:30~7:00	저녁 식사	저녁 식사
7:00~7:30	찬양/광고	찬양/광고
7:30~9:00	요한계시록 (이상명 목사)	요한계시록 (이상명 목사)
9:00~9:30	기도/마무리	기도/마무리

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 박은성 목사 취임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은퇴식도 겸해

나성영락교회 제5대 담임에 박은성 목사가 취임했다. 취임사에서 박목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은혜로 최선을 다해 목회하겠다”고 전했다.

담임목사 취임식은 3월 12일 오후 4시에 열렸다. 나성영락교회 임시당회장 지영환 목사의 집례로 예배가 시작됐다. 나성영락교회가 해외한인장로회 교단 내에서 갖는 입지를 보여주듯 교단의 주요 인사들이 식순자로 참여했다.

부총회장 박성규 목사(주님세운교회)가 대표기도하고 전 총회장 노진걸 목사(홀러튼장로교회)가 설교했다. 미주장신대 전 총장 서정은 목사와 서노회장 김신 목사(주향교회), 한국 장신대 임성빈 총장이 권면, 축사했다. 박은성 목사가 드루

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Ph.D. 과정을 공부하던 당시 은사인 제프리 관교수(클레어몬트신학교 총장)도 축사했다.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롬14:15-21)”이란 제목으로 설교한 노진걸목사는 설교 중 최근 나성영락교회에서 발생했던 갈등을 의식한 듯한 메시지를 전했다. 노목사는 “마귀는 우리 안에 죄를 심어서 서로 싸우고 이간하며 분열하게 한다. 우리가 잘잘못을 따지고 서로의 허물을 들추어낼 때 마귀가 주는 기쁨은 즐겁지만 사악하다.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은 성령의 즐거움, 그 평화를 누리길 원한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을 생각하며 그에 맞는 일꾼이 되길 바란다.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될 줄 믿는다”고 전했다.



영락 셀러브레이션 교회의 마이클 리 목사(가장 오른쪽)가 박은성 목사 부부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 예배에서는 영어권 교회인 영락 셀러브레이션 교회의 마이클 리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영락 셀러브레이션은 2003년 나성영락교회로부터 독립했지만 작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며 교육부

사역 등 여러 면에서 나성영락교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리목사는 “영광스러웠던 과거가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실 미래와 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가자”며 박목사의 취임을 축하했다.

담임목사 취임에 이어서는 2명의 장로, 8명의 안수집사, 34명의 권사의 은퇴식도 있었다. 은퇴식은 박은성 목사가 집례했으며 유영기 총회장이 축도함으로 끝났다.

김준형 기자



3월 8일 월드미션대학교에서 인가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앞줄 왼쪽부터) 김현경 교수(상담학사 과정 디렉터), 송정명 총장, 임성진 부총장, 최문환 이사, (뒷줄 왼쪽부터) 윤임상 교수(음악학사 과정 디렉터), 유에스더 교수(음악학사 과정 디렉터), 신선국 대학원장.

월드미션 교회음악학 박사 과정 인가 기독교상담대학원 OC 분교도 승인

월드미션대학교가 교회음악학 박사 과정과 기독교상담대학원 오렌지카운티 분교에 대해 ATS(The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로부터 정식 인가를 받았다. 이로써 월드미션은 남가주 한인교회에 필요한 전문적 음악 인재 양성에 더욱

박차를 가하게 됐고 오렌지카운티 지역에서도 공신력 있는 상담학 과정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한인신학교 가운데 교회음악학 박사 과정이 ATS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월드미션은 2016년 4월 1일 이 과정의 인가를 신청했고 ATS의 까다로운 심사

를 거쳐 2017년 2월 2일 최종 승인을 받았다. 학교 측은 “이 과정은 교회 음악을 중심으로 연주와 연구, 관련 학문 영역에 대한 전문적 수업이 이뤄지는 고등과정으로 교회의 영적, 음악적 리더를 지도하는 교육자를 양성한다”고 전했다. 또 “한인 교계에도 더욱 전문적으로 교회 음악을 공부하고자 하는 수요가 컸는데 이제 월드미션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 전망했다.

한편, 상담대학원은 2012년 ATS의 인가를 받은 이후, 한인기독교상담소를 개원해 한인들의 실질적인 상담 필요를 채워주고 LA카운티 정신건강국과 협력해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 대학원을 졸업하면 기독교상담사, 목회상담사, 가족상담사, 아동심리상담사 등 다양한 직업군에서 일할 기회가 주어지며 졸업생 중 다수가 기독교 상담 기관이나 해외 선교지에서 상담 사역을 하고 있다.

상담대학원은 그동안 LA 외에 부에나파에 티칭 사이트를 개설해 오렌지카운티 지역 거주자들이 이곳에서 수업을 듣고 있던 차에 이번에 분교로 인가를 받은 것이다.

김준형 기자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회장 이취임식이 한빛교회에서 열렸다. ©연목회

남가주 연목회 김기동 회장 취임

남가주 연세동문목회자회 신임회장에 김기동 목사가 취임했다. 김목사는 “언더우드 선교사의 정신으로 세워진 연세대학교 출신 동문들이 모인 연목회가 서로 존경받고 존경하는 모임이 되기 바란다”면서 “사회와 동문과 교회를 위하여 조금이나마 섬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13일 한빛교회(차광일 목사)에서 열린 이취임예배에서는 조종근 목사(수석부회장)의 사회로, 고재원 목사(증경회장)가 기도하고 남상국 목사(부회장)가 성경을 봉독한 후,

류재덕 목사(증경회장)가 “백부장님, 알아됩니다(막15:37-39)”란 설교를 전했다.

이어 전 회장 이종렬 목사가 이임사를 전하고 김기동 목사가 취임사를 전했다. 권영대 목사가 축가를 부른 후, 최순길 목사(남가주 교협 공동회장)와 이호우 목사(OC 교협 회장), 김종대 장로(OC한인회장), 김지백 동문(남가주 연세총동문회 이사장)이 축사했다. 김종수 목사(총무)의 광고 후 윤경중 목사(증경회장)의 축도로 모든 식순이 끝났다.



• 이번에는 무슨 차로 할까? • 요즘 스포츠에 있는 차가 무얼까?
• 자동차 구입할까? • 리스 할까? • 내가 용자가 될까?
안녕하세요! 10년의 경험을 기반으로 고객님의 고민 해결을 한 방에 날려 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도와 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다 둘러보시고 오세요~
당신의 마지막 카드
16년 경력의 자동차 판매 전문가, 찰리 정

푸엔테힐스 현대
Puente Hills Hyundai

찰리 정 (FLEET MANAGER) | 213-276-8959 | email: usajyk@gmail.com

문/사/선/교에 앞장서는
기독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아이비 유학

3·7·21 재능캠프

LA 500 Shatto Place, Suite 200
Torrance 17002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Irvine 17702 Cowan, Irvine, CA 92614

Shelby Kwon
Director

얼바인 홈스테이 정착 서비스

USA Tel: (949) 329-8222
Email: shelly.moon65@gmail.com
www.Mylvydream.com

남가주 목회자를 위한 종교개혁 500주년 특별세미나 H. Simon의 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본 변화의 구조와 과정(Change mechanism)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기독일보가 남가주 목회자들을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지난번 로마서 원전강해 세미나에 이어서 두번째로 고승희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강의를 듣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주제 :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 그 마음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나는가?
- 일시 : 2017년 3월 30일(목) 오후 2시~5시
- 장소 : 기독일보 (621 S. Virgil Ave, #260, Los Angeles, CA 90005)
- 강사 : 고승희 목사(아름다운 교회 담임)
- 참가비 : 무료
- 문의 : Tel(213)434-1170, (213)739-0403
* 자리가 한정되어 있어서 전화로 예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사 : 고승희 목사

〈선교 부흥을 회복하라〉

이상훈 목사의 열방 이야기 10



터키 연합중보기도회와 실크웨이브미션

2007년 2월 28일부터 터키 서남부 지역 안탈리아(밤빌리아)에서 역사적인, 현지 선교사와 한국과 미국에서 간 중보기도자들이 모인 <터키와 쿠르드, 이슬람을 위한 연합중보기도회>가 열렸다. 그때 필자는 터키의 장기 선교사이던 김진영 선교사를 처음 만났다. 첫 눈에도 겸손하고 온유한 성품, 신실한 느낌이 드는 선교사였다.

그곳에서 288명의 현지 선교사, 한국과 미국에서의 중보기도자들이 모여 4일간 터키를 위한 연합중보기도회를 했다. 김 선교사는 터키에서 사역하면서 선교사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눌러 있음을 안타까워하며 이것을 이기고 일어설 수 있는 길은 중보기도밖에 없음을 알았다. 중보기도를 위해 동역자들과 비전을 나누었고 그렇게 하여 터키 선교사 연합중보기도회 준비위원회가 구성되었다. 미국에서 김 선교사의 비전과 함께할 목회자 동역자들이 모였고, 연합중보기도회를 섬기는 실크웨이브미션(Silk Wave Mission)이 탄생했다.

처음 시작될 때의 어려움을 회상하면, 지금까지 10년간 이어져 온 이 연합중보기도회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터키 현지 선교사들 중 이 기도회를 오해하여 비난하고 방해하는 이들도 있었다. 김 선교사가 받았던 모욕과 조소는 대단했다. 그런 중에도 하나님께 깊이 기도한 후 응답을 받은 사역이었으므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굳건히 믿으며 연합중보기도회는 매년 발전했으며, 특히 현지인 성도들, 목회자 그리고 외국 선교사들에게까지 영향을 끼치며, 마침내 2012년부터는 터키 현지인 연합중보



김진영 선교사(우)와 김은경 선교사(좌) 부부

기도회가 열리게 되는 일에 기여했다.

중보기도가 강성해지면서 교회개혁 운동이 자연 활발해졌고, 또한 시리아 내전과 IS 사태로 수백만명의 난민들이 터키로 몰려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중보기도운동으로만 머무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미국의 실크웨이브미션은 난민들을 직접적으로 돕기 위하여 캠페인을 통해 모금된 현금으로 난민들의 텐트지원, 식량지원, 성경보급, 난민학교지원, 의료전도사역 등을 하는 선교체제로 긴급 전환하기도 했다.

필자는 김 선교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믿는다. 그가 기도하고 계획하는 새 사역들은 도무지 염두가 나지 않을 만큼 어려운 것들이었다. 그런데 그가 일단 계획하고 추진을 하면 동역자들이 붙는다. 현지의 사역의 길이 만들어진다. 중보기도자들이 몇 천 명씩 밤낮으로 기도한다. 10여 개가 넘는 지역 중보기도팀들이 매주 모임을 가지며 그 계획을 기도로 후원한다. 다윗의 조약돌을 사용하여 골리앗을 쓰러뜨린 하나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그에게 역사하신다. <계속>



아버지학교가 남미 가정을 회복시키는 선교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마나과에서 열린 제1기 아버지학교 모습.

아버지학교 운동, 남미 선교의 도구 되다

미주 두란노 아버지학교가 니카라과에서 현지인 90명을 대상으로 열렸다. 니카라과의 수도 마나과에서 사역하는 정진모 선교사가 아버지학교 측에 프로그램 개설을 요청했고 미주 본부에서 2명, 콜롬비아에서 2명, 코스타리카에서 5명, 멕시코에서 3명의 아버지학교 형제들이 연합해 니카라과로 날아갔다. 3월 9일부터 11일까지 열린 제1

기 마나과 아버지학교가 성공적으로 끝남에 따라 오는 7월과 10월에 제2기와 제3기도 개설하기로 했다. 아버지학교 수료자들이 자원봉사자가 되어 다음 기수를 섬기는 전통에 따라, 제3기까지 무사히 마치고 나면 수료자들이 봉사자가 되어 북쪽으로는 과테말라·온두라스·엘살바도르, 남쪽으로는 코스타리카·파나마, 동쪽으로는 카리브해 지역

인 쿠바·하티티·도미니카공화국으로 진출해 중미 지역 현지인 가정을 회복하길 기도하고 있다.

이명철 사무국장은 “아버지학교 운동이 선교적 도구로 남미 지역에서 사용됨을 감사 드린다. 미국 내 한인교회들도 아버지학교 프로그램을 활용해 남미 지역 연합 선교를 할 수 있길 소망한다”고 전했다.

김준형 기자



베델MIT대학 모습



송지혜 교수의 강의 모습

베델한인교회, 시니어 대학 및 송지혜 교수 학부모 세미나

베델한인교회(김한요 목사)가 지난 3월 3일 시니어들을 위한 베델 MIT대학을 개강했다. 오전 9시 30분 예배를 시작으로 여명미 박사가 “아름다운 대화기술”이란 특강을 전했다.

베델MIT는 오후 선택강의로 라인댄스(함은정), 스트레칭(김하나), 컴퓨터 초급(김화경), 컴퓨터 중급(이정), 중국어(주순화), 스페니쉬(캠블

리 나), 서양화(강혜란), 한국화(홍봉자), 서예(이선정), 손뜨개(조옥순), 노래교실(김영란), 사진교실(이정필), 기타교실(김신현), 오토하프(공지숙), 탁구교실(김석만), 스마트폰(이봉수, 윤영우), 문학반(연구호, 최용완), 난타(함은정) 등이 있다.

5월 5일 산타바바라 기차여행 봄소풍이 있고 종강은 6월 16일이다. 또 이 교회에서는 지난 12일 학부모

모 대상의 자녀교육 세미나가 송지혜 교수를 강사로 개최됐다. 송 교수는 자신의 전공인 피아노 관련 교본과 함께 <남편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아이 성격만 알아도 행복해진다> <결혼 후 나는 더 외로워졌다> 등의 베스트셀러를 저술한 바 있다. 이날 송 교수는 자신의 간증과 함께 부모들에게 유익한 강의를 전했다. 권 쉐비 기자

기독한의사협

3월 정례 모임 열어

미주기독한의사협회(회장 정종오)가 12일 오후 3월 정례모임을 열고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예배와 영적 세미나를 진행했다.

세미나 전 예배에서는 엄한광 명예이사장이 기도하고 햇빛선교회의 정희욱 목사가 설교했으며 A국에서 선교 중인 험시바 선교사가 간증을 했다. 저녁 식사 후에는 국제치유공동체의 장규대 목사가 영성세미나를 인도하고 사론 최 한의사가 근육테스트 진단법 강의를 했다.



미주기독한의사협회가 소망장로교회에서 3월 예배와 영성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김성일 초대회장, 이기미 전 회장, 이찌니 부회장, 김사론 총무, 김유나 회계, 장재수 이사, 정종오 회장은 서병길 요르단 선교사에게 도복 22벌을 후원했다.

이 협회는 오는 4월과 5월 중풍

치료와 한방통합치료에 관해 한의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또 4월 29일에 프레즈노 동족 의료선교와 5월에 메모리얼 연휴 가족동반 영성수련회를 연다.

문의) 213-703-8541

기독일보

편집고문 : 박희민, 정재효, 박기호, 방지각, 김준연, 고승희, 민중기, 정우성, 김혜성
이 사 장 : 오병익 발 행 인 : 이인규 고문변호사 : 정찬용
지 사 : 로스앤젤레스, 뉴욕, 샌프란시스코, 워싱턴DC, 시카고, 애틀랜타, 시애틀

대표전화 : (213) 739 - 0403 / E-mail : chdailya@gmail.com
Pay to the Order of : Christianity Daily
주소 :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국제 음악 선교회 창단예배 (INTERNATIONAL MUSIC MISSION)

국제 음악 선교회가 창단예배를 드리고 단원을 모집합니다.

설립 목적

캘리포니아주에 비영리단체로 정식인가 (C3987209)받은 국제음악선교회는 음악선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커뮤니티와 교계와 선교지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자 설립한다.

모집 부분

CHORAL(VOICE ENSEMBLE), CHAMBER ORCHESTRA, WORSHIP DANCE

국제음악선교회 목표

첫째로는 자신의 음악적인 재능 개발과 정서적으로 안정되어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줌으로 이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협력하며, 남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도록 한다.

둘째로는 소외된 자들(양로원, 병원, 홀리스)에게 찾아가 아름다운 목소리와 악기와 워십댄스로 영,육간에 활력을 주고자 한다.

셋째로는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무너져 가는 이 세상을 향해 음악과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와 변화를 주며,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유니티를 이루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함이다.

넷째로는 국제적인 음악선교회로서의 면모를 갖추어 연약한 선교지에 나아가 음악적인 재능을 발굴하고 후원한다.

특전

회비무료 · 성악을 전공하고자하는자는 상임지휘자의 추천을 받아 이태리로 연수를 보낼 · 커뮤니티서비스 크레딧 제공.

일시 2017년 3월 23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엘에이 연합교회(교귀남 목사 시무)
111 N. Virgil Ave., LA, CA 90004



이사장
최순길 목사



상임지휘자
이태리성악전공
김종술 목사



워십댄스
진영자 권사

국제 음악 선교회(INTERNATIONAL MUSIC MISSION)

978 S. HOOVER ST #201, LOS ANGELES, CA 90006

사무실 : 213-386-0300

공홀히 여기는 자의 복

마태복음 5:7



서울 성은교회 목사 장재효

공홀이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과 같은 사랑의 중심으로 불행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가짐을 말합니다.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딱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고 위사람이 아랫사람의 불행을 마음아파서 불쌍하게 여겨주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이것은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의 입장에서 믿음으로 진리를 깨닫고 회개했기에 의롭다는 자격을 얻었습니다. 인생고의 불씨가 되던 저주와 불행의 죄악이 하나님이 나를 공홀히 여기심을 통해 용서받을 수 있게 되었기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의인의 자격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 자기 가치 기준이 육체의 현실적인 입장으로 돌아야 버리고 영적 가치를 망각하고 상실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평가받는 가치 기준은 인간의 학벌이나 지식, 출세나 명예, 재산이 아니라 상한 심령이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 제물로 지불하시면서까지 죽었던 내 영을 다시 살려 주셨다는 것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는 생활로 일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10부터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올라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외형적으로 나타나는 조건에 행세하기 좋아하는 오만의 모습입니다. 그 인생은 육체의 조건과 외형적인 치장에 중점을 두고 그 심령이 썩어가고 있는 고통과 소망을 잃은 것에 대한 괴로움을 깨닫지 못한 태도였습니다.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죄인이라는 지탄과 욕을 듣고 살아온 세리는 감히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지금의 세무서 직원과 같은 세리를 미워했던 이유는 그 당시 로마 식민지로 있었던 유대 나라의 세리들은 동족들에게서 로마에서 요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남은 것을 자신의 몫으로 챙기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런 자가 자기 자신이 죄인임

을 깨달았다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심령의 가치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살아온 삶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것은 스스로 자기 심령을 공홀히 여기는 자세에서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공홀히 여기기 전에 말씀을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가 어떤 지경에 있는지 살펴보고 비참하게 썩어져가고 있는 심령을 진심으로 공홀히 여기는 마음자세가 앞서야 하나님 앞에 세리와 같은 진지하고 간절한 회개의 기도가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심령이 죄악에 찌들어 지옥으로 향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남을 불쌍히 여길 처지가 못됩니다. 내가 먼저 구원을 얻고 하늘 시민권자가 되어진 다음에 구원 얻지 못한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위에 언급한 바리새인과 같이 월급타면 십일조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금식을 하고, 아무개와 같이 자신은 죄도 안 짓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는 외식적 신앙으로 치우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8:15-18에 “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네가 네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참케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고 하신 말씀은 천국 비밀을 일깨워 주시면서 복음의 사역자로 훈련시켜 세워 쓰실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한 인생의 영혼을 구원시키기 위해 자기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지옥까지 않도록 회개하기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으면 두세 사람과 함께 가서 다시 한 번 촉구하고, 그래도 듣지 않으면 교회에서 공개적으로 죄를 지적하고 권면하라고 합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면 그 사람은 회개하고 구원 얻기 위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로 여기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이상 소망 없는 백성이므로 제쳐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홀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 때 베드로가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하고 물으니 예수님께서서는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할지니라”고 하십니다.

일흔 번씩 일곱 번은 490회를 뜻하기 보다는 무한대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앞서 하신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자기 영의 가치를 깨닫고 회개한 성도가 용서를 구한다면 이처럼 해야 한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자기 잘못도 깨닫지 못한 자를 용서해주는 것은 그 사람의 죄를 덮어 지옥으로 밀어 넣는 행위와 같다고 하십니다.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것은 미워서가 아니고 그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내고 구원시켜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마태복음 18:23-35를 보면 “천국은 그 종들과 회계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계할 때에 일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값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 대 그 종이 엎드리어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했습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는 것 같은 종의 태도에 주인은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그 종의 빚을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백 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빚을 갚으라” 합니다. 그 동관은 임금 앞에서 엎드려 말했던 그 종과 같이 “나를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고 간구했지만 욕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 동관들이 그것을 보고 심히 민망히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고하니 주인이 다시 그를 불러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네 동관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고 하고는 욕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4:30-33에도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셨습니다.

공홀을 입은 사람은 공홀을 베풀 줄 알아야 합니다. 엄청난 죄의 울무 가운데서 공홀로 용서함 받았는데, 감사할 줄 모르고, 잊어버림으로 타인을 용서할 줄 모른다면, 그 또한 하나님 앞에 공홀의 용서를 기대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한 자가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할 때 용서해 주지 아니함으로 인해 자신이 용서받은 죄를 무효화시키는 바보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공홀히 여기는 자는 공홀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 했습니다. 내가 하늘 소망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도 용서를 구하는 자들을 용서해 주는 지혜를 앞세우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용서는 영원한 평화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성은교회 장재효 목사 TV / RADIO / 신문 / 인터넷 동영상 설교

한 국 선 교 설 교					
T V 한 국 방 송 설 교			한 국 신 문 설 교		
CBS TV	목요일 오후 2시		경북 기독교 신문	3면 설교	
CTS TV	금요일 오전 6시		기도원 연합신문	3면 설교	
해 외 선 교 설 교					
T V 미 국 방 송 설 교			라 디 오 미 국 방 송 설 교		
COX TV 워싱턴DC.	화요일 오후 6시	목요일 낮 12시	AM1540 라디오 코리아	주일 오전 8시 / 동영상 설교 제공	
	토요일 오전 7시	주일 오후 10시30분	AM1590 시카고 기독교방송	월요일 오전 11시 20분	
CTS TV	수요일 서부 오후 4시30분 / 동부 오후 7시30분		AM1190	월요일 오후 5시 / 하와이 현지시간 오후 5시	
	토요일 서부 오후 6시 / 동부 오후 9시		LA 미주 복음방송		
미 국 신 문 설 교			AM1310 기쁜소리방송	화요일 오후 7시30분	금요일 오후 2시30분
기독일보	5면 설교	오프라인 칼럼 설교	FM91.5(SCA) AM1650 LA 미주기독교방송	수요일 오후 1시, 오전 2시	
	인터넷신문 설교	온라인 칼럼 설교			

지구촌 어디서든 YOU TUBE에서 “장재효 목사”를 검색하면 동영상 설교들을 선택시청 가능합니다.

提供 국제 성은복음선교회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커뮤니티의 미래와 함께합니다

리스장학생 모집

리스장의사가 반이민 정책에 힘들어 하는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모든 한인 학생과 부모님을 위해 리스장의사와 같은 작은 기업들도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것을 알고자 장학금을 준비 했습니다.

목사님, 신부님등 사회지도자들의 추천장과 학생 본인의 현재 상황, 꿈과 희망을 담은 한글 자기 소개서를 아래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심사를 통해 선발된 학생에게 한 학생당 \$500, 20명에게 총 \$10,000의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접수자격 서류미비자를 비롯한 한인 학생
이메일접수처 HR@leesmortuary.com
접수기간 4월1일부터 5월30일까지
발표 6월 5일 개별 통보
지급일시 6월 10일 토요일 오후 5시
지급장소 리스장의사 City of Orange 본사
홈페이지 www.leesmortuary.com

최저가격 보장제

- 유족과 같은 마음으로 리스장의사도 함께합니다. 하지만, 장례는 현실입니다
- 지금은 무한 경쟁시대, 최소 10% 이상 더 저렴한 비용을 약속드립니다

무로출장서비스

- 고인의 교회, 자택에서 장례식을 치루실 수 있도록 출장서비스를 무료로 도와드립니다
- 타 장의사의 채플비용을 절약하시면서 고인과 지인들에게 가장 편안한 장소를 선택하세요



1000대 동시주차 규모의 넓고 편리한 파킹 / 아름다운 채플 / 깔끔하고 안락한 분위기

사카고 스미스 코코란
185 EAST NORTHWEST HIGHWAY,
PALATINE, IL 60067
아틀란타 리장의사
4067 INDUSTRIAL PARK DRIVE
NORCROSS, GA 30071

24시간 한국어 문의

(714) 469-1040

Fax (714) 333-4916 351 N Hewes St, Orange, CA 92869



Since 1966
리스장의사
Lee's Mortuary FD1164



담임목사 청빙

아가페 장로교회는 샌프란시스코 베이지역에 있으며 1976년도에 설립되어 PCUSA 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입니다. 다음과 같이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자격요건**

1. 정규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분
2. 5년 이상 목회경험(담임목사 또는 부목사)
3. PCUSA 소속 및 가입이 가능한 분
4. 미국에서 목회하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분

■**제출서류**

1. 이력서
2. 졸업증명서(대학교와 M. Div.)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 또는 youtube link)
6. 추천서 2통(봉인)
7. 본인 및 가족 사진 각1매

■**제출기간** : 2017년 4월 16일(일) 까지

■**제출처** : Agape Church PNC

1250 – I Newell Ave #236., Walnut Creek, CA 94596
E-mail: apcpnc2017@gmail.com

■**기 타** : 제출서류는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가페 장로교회

www.agapepc.org

크리스천 자녀를 위한 **골프 교실**

저렴한 비용으로 골프와 성경공부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

*픽/업/가/능

P.G.A Player Tour	(12~14살 1~2명 모집)
P.G.A Player Tour	(8~11살 1~2명 모집)

- Email : mrjacob601@hotmail.com
- 문의 : 최 제이콥 프로 T(310) 598-0746

Golf Studio 각종 골프클럽 최저가 판매
(Olympic 갤러리아몰 322호)



LA 예담교회 부설 다중지능 교육원

성격과 적성에 맞는 나 자신의 미래 직업이 궁금하지 않으세요?
사람의 지문(Finger Print)은 태아의 뇌 발달 상태를 그대로 반영하여 형성됩니다.

지문(Finger Print)을 통해 선천적이고 유전적인 개인의 진로(전공)와 직업, 적성을 8가지의 다중지능(Multiple Intelligence)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집단상담(Group Counseling) 개인상담(Personal Counseling) 진로 직업적성검사(Mi test) 문의 (323) 559-0070 상담학 박사과정

LA예담교회 1134 S.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20

*전도사님을 찾습니다.

(최 제이콥 목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New Bridge University Golf Management
The Reformed University 대학원
Dea Han Theological Seminary U.S.A 신학박사
LA 예담교회 담임목사

담임목사 청빙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KCPP)에서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참되고 진실하며, 영성, 인성,그리고 지성을 갖추신 선교 지향적 담임목사님을 청빙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는 1975년 창립 되어 미국 장로교(PCUSA)소속으로 '선교하는 예수 공동체'라는 비전으로 온 성도가 신앙과 생활의 일치를 위해 성경적인 삶을 지향하는 교회입니다.

■ **지원 자격**

1. 미국 장로교에 가입되어 있거나,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신 분
2. 신학대학원(M. Div.)를 마치고, 5년 이상의 목회 경험이 있으신 분
3. 한국어와 영어 사용으로 이민 목회에 불편이 없으신 분

■ **제출 서류**

1. 이력서
2. 졸업 증명서(대학교와 M.Div.) 및 목사안수 증명서
3. 자기 소개서(신앙고백, 목회 경험, 성장 배경, 가족 사진, 사모와 자녀 소개)
4. 목회 철학과 비전
5. 3인의 추천서 및 5인의 Reference 이름과 연락처(주소, 전화번호와 이메일)
6. 최근 1년 이내의 설교 2편(CD또는 youtube link)

■ **서류 제출 마감일** : 2017년 4월 30일(일) 소인까지

■ **제출처**

1.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Cincinnati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Pastoral Search Committee
5178 Steeple Chase Ct, Guildford, IN 47022
2. Kpccsteam2017@gmail.com

■ **기타 사항**

1. 제출된 서류는 일반 우편과 이메일로만 접수합니다.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분에게는 개별 통지합니다.

신시내티 한인 장로교회

담임목사 청빙 위원회

는 현대사회에서 어떤 적용을 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666에 대한 해석입니다. 홀 린지가 말하는 것처럼 666을 사탄의 삼위일체로 보는 것은 성경신학의 가르침과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666은 사람의 수이고 당시의 게마트리아(gematria)라는 셈법에 대한 것입니다. “나는 545를 사랑한다.” 이는 이름의 철자에 해당하는 숫자를 더하여 545가 되는 연인을 사랑한다는 의미입니다. 666은 당시의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이것을 컴퓨터니, 컴퓨터의 바코드니, 요즈음처럼 바이오칩이라고 하는 주장은 성경의 곡해입니다.

민을 만한 초대교회의 성경사본에 의하면 666은 616으로도 쓰여 있습니다. 이는 히브리어 네로 황제(616) 혹은 네론 황제(666)라는 단어의 게마트리아 셈법입니다. 홀 린지의 공헌이 있다면, 2000년 전의 성경을 지금 이 시대에 비추어 적용하려고 한 시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먼저 성경 자체의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로서 이 시대의 적그리스도, 즉 타락한 정치세력을 찾고, 거짓선지자 노릇하는 배교한 교회를 분별하여야 합니다.

참 좋은 길잡이



김 성 민 목사
펠리세이드교회

로 장식된 아름다운 꽃이었다. 이름도 모르는 꽃을 보는 스스로의 무지함을 자책하며 그 아름다움에 마음을 또 다시 빼앗기고 더 쉬고 싶은 욕망을 버리고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왼쪽 새끼발가락이 아플 즈음 되어 10마일 행군을 잘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생각해 보니 참으로 귀한 시간이었다. 자연의 아름다움 때문이다. 하지만 그 아름다움도 좋은 길잡이가 없었다면 즐기 못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났다. 내가 잘 올라가고 내려갈 수 있도록 열 발자국 앞에서 자신을 보고 따라 오라고 앞서간 길잡이의 열심이 나로 하여금 등산을 잘 마치게 한 것이다. 또한 앞에 무엇이 있고 어디에서 쉬어야 하는지 알지도 못하는 내가 적당히 잘 견딜 수 있도록 좋은 자리로 인도하여 자연의 아름다움을 누리게 했던 길잡이가 나에게 가장 중요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하나님은 세상에 사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길잡이가 되어주셨다. 죄

로 인하여 망가진 우리를 건강하게 회복하시고 어려운 고비들을 거뜰히 넘기며 세상의 아름다움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내가 한 것 같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가 아니었다면 지금의 나는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된다. 인생의 속도와 가는 길, 어디에서 쉬며 어디에서 둘러보아야 하는지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순종하면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은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준귀의 길잡이니라”(잠언 15장 32-33절)라고 하시며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길에서 떠나지 말라고 하신다. 그 때에 건강은 물론이고 아름다움을 만끽하며 세상을 이기고 아름다운 믿음의 추억거리들을 많이 만들며 살아가게 되기 때문이다. 그 때에 참 좋은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올라가기도 하고 내려가기도 하며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행복으로 바꾸어가며 살아가게 될 것을 믿는다.

참 좋은 길잡이 되시는 하나님을 순종하자. 그 길이 눈에는 달라보여도 나에게 가장 좋은 길임에 틀림없음을 믿으며 나아가자. 그 때에 후회함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조국을 위해 올라



김 한 요 목사
베델한인교회

로 나라가 몸살을 앓았으니 왜 대통령 책임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나라 각계각층에서 현재 결정 이후가 더 중요하니 결정에 승복하고 나라가 하나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우려를 내놓는 상황에서, 탄핵반대를 외치며 끝까지 대통령 앞에서 응원했던 국민들을 진정 시키며 국론이 더이상 분열하지 않고 안정을 조속히 취하고 새로운 미래를 위해 국민의 힘을 모아 달라는 대국민 메시지가 현재 결정 발표 직후는 못했더라도, 하루가 가

전에는 있어야 했는데 ‘책임지는 리더십’이 너무 아쉬웠습니다. 리더의 위치는 정말 외롭고 힘든 자리입니다. 주어진 힘과 명예만큼이나 엄청난 무게의 책임감에 숨을 못 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는 길에,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 것을 보시고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올라.”(눅 23:28) 교회는 정치적 성향으로 분열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자가의 복음은 진보 보수 위에 있는 공통분모이기 때문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촛불 혹은 태극기 들고 나갈 수 있어도 교회는 심자가만이 우리를 하나로 묶을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골고다를 향하여 가시던 주님이 “자녀를 위하여 올라”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런저런 말보다는 눈물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활성산소 제거?
해답은 수소수!

좋은 물을 마시면 우리의 건강이 좋아집니다

노화를 촉진하고 세포와 DNA를 공격하여 각종 질병을 일으키는 병들의 원인이 바로 활성산소(독성산소, Free Radicals)이며, 수소는 그런 활성산소와 결합하여, 우리 몸에서 부작용이 전혀 없는 물로 변환되어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수소의 역할

- 대표적 활성산소인 하이드록시 라디칼과 결합해서 몸에서 배출
- 체내의 염증을 제거하여 통증을 완화
- 미세분자상태로 체내의 모든 부분, 심지어 뇌까지 도달되어 활성산소를 제거

본 수소수기의 특징

- 1) 2중 역삼투압 방식에 의한 순수한 원수를 바탕으로 고농도(800~1,000ppb)의 수소수를 생성하며, 물의 성질은 우리 몸에 가장 적합한 약알카리 상태가 됩니다.
- 2) 대용량 필터를 사용하여, 깨끗한 물을 생산한 별도의 전해조에서 생산된 수소가스를 우리가 음용하는 물에 가압하는 침탄방식으로 즉시 물을 드실 수 있고 오랜기간을 사용해도 수소가스의 농도가 유지됩니다.



일본의 시타마대학교의 하타나 가즈미 박사의 연구에 의하면, 수소농도 1,000ppb의 경우에 베타카로틴 함량 기준으로, 위와 같은 양의 항산화 물질을 얻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일반 항산화 물질은 들어갈 수 없는 뇌 속이나 깊은 장기의 미세조직까지도 수소는 도달될 수 있으며 도달된 수소는 활성산소들을 물로 변환시키므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프랑스 “루르드 샘물”
독 일 “노르데나우 샘물”
멕시코 “트라코테 샘물”

세계 3대 샘물의 비밀

기적의 수소수를
가정에서 드세요!

수소수 무료 제공!
깨끗하고 건강한 물 트러쉬 오세요,
한국의 **에네스티 PLUS**에서
생산된 우수한 제품입니다.

CTP 100
\$1,3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가장 강력한
항산화 물질
GSPH 100
\$2,990 +Tax
- 1년 필터교체 무상
- 냉, 온수 정수기



수소 보틀(1병) 구입시
에네스티 핸드크림 2개 Free
(12월 상당 시은품)

공짜



■ 환원력이 뛰어난 수소가 생성되는 보틀

[제품특징]

*스테인레스 필터를 통해 입차, 티백, 천연차 등 다양한 음료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적정사용온도 : 친환경소재와 제품 변경 방식을 위해 -20도~100도 사이에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심플한 디자인, 친환경 트라이탄 소재로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높은 휴대성으로 여행, 스포츠, 레저 등은 물론 일상에서도 편리합니다.

1병 ~~\$95.00~~ \$65.00 +TAX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승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장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BAJA CALIFORNIA
NATURAL SEA SALT

세계 최대 규모의 천연염장지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

바하 캘리포니아 소금의 특징

- 최적의 생산조건에서 생성된 순도 99.70%의 미네랄소금
- 중금속 0.001% 청정 천일염
- 간수 제거된 건강 천일염
- 다년간 생산과정을 거친 최상급 천일염
- KA-Kosher 인증 천일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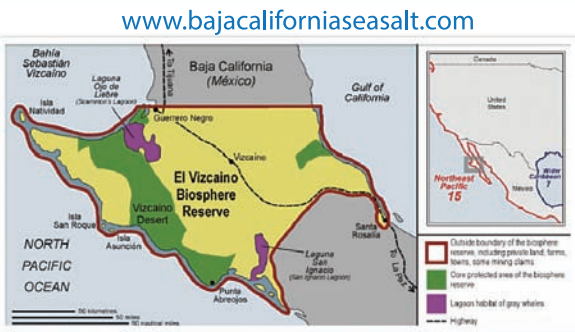
바하 캘리포니아(BAJA CALIFORNIA) 염전의 특징

- 청정해역에 위치한 깨끗한 구역
- 적은 강수량 (50mm/년)
- 강한 일조량 (2M/년)
- 년 평균 기온 (18~22°C)
- 강한 바람



성분분석 및 인증서
바하캘리포니아 천일염은 기존의
호수 수입 천일염 및 국내 천일염과
비교하여 천일염의 기능과 소비자의
선호도 또한 우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 1봉지



www.bajacaliforniaseasalt.com

UNESCO's El Vizcaino Biosphere Reserve

건강한 피부의 시작
에네스티 화장품

enesti

이제 물에서도 당당하게!

Enesti UV/CUT SUN/BLOCK

에네스티 유브이 컷 썬블럭

워터프루프/자외선차단 기능성 화장품
(메이크업 베이스 겸용
SPF 50+ PA+++ (40ml))

\$8.00 + tax



촉촉! 시어버터 핸드크림



PROTECTION FROM UVA, UVB WATERPROOF ANTI-SHINE EMULSION

Enesti 샤르르~ 시어버터 촉촉 매끈 핸드크림

초고보습 시어버터 함유 Softening and moisturizing

Net. wt. 50g

\$6.00 + tax

구입 문의 213.434.1170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621 S. Virgil Ave, Suite 260, LA, CA 90005

PRO-Z USA Inc.

프로지 유에스에이

“촛불이든 태극기든 현재 판결 존중해야”

살롬나비 현재 판결 후 논평 발표

‘살롬을 꿈꾸는 나비행동’(상임 대표 김영한 박사, 이하 살롬나비)이 “모든 국민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현재 판결에 승복하고 사회 통합으로 나아가 한다”며 “박 전 대통령은 자신의 불만을 버리고 현재 결정에 승복을 표명하며 국민통합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살롬나비는 13일 발표한 논평에서 “진정한 지도자는 개인의 생각을 버리고 국가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어렵지만 현재 결정을 받아들이고 국민이 통합해 나라를 지켜달라’고 말하는 것이 전직 대통령의 바른 태도”라며 “이런 언급이 없는 것은 유감스럽고 우리 정치인

들의 의식의 현주소이다. 참 지도자는 자기 유익이 아니라 국가 통합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는 자”라고 했다.

이어 “태극기(집회) 참여자는 판결이 기대와 달랐더라도 애국심을 발휘하여 이에 승복해야 한다”면서 “이제 단심판결로 규정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는 개인적으로 불만이 있더라도 국가의 미래를 위하여 승복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촛불과 태극기는 연합하여 평화롭고 정의로운 국가공동체를 재건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우리 국가공동체를 더욱 평화롭고

통한 민주공화국으로 재건하고 육성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다. 이제 우리 국가를 인치가 아니라 법치에 따라 지키면서 새롭게 재건하고 육성해야 한다. 70년이 넘도록 우리들의 국가공동체를 심각하게 파괴하였던 낡은 좌우대립과 남북분단을 넘어서야 한다”고 했다.

또 “우리는 건강한 헌정발전을 위한 바로 그 전환점을 마련해야 할 역사적 책임을 갖고 있다”며 “지금은 지난 70년 동안 여야 기성 정치세력에 의해 무참히 훼손된 헌정 질서를 우리 국민이 나서서 건강한 헌정발전으로 전환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기회다. 이번 현재 판결을

존중하고 준수하는 것만으로도 바로 그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 가운데 어느 누구 하나 어느 집단 하나라도 이번 현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지난 70년 동안 기성 정치세력이 합부로 저질러왔던 헌정 훼손과 헌정농단을 넘어서서 우리 스스로 헌정문란을 자초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살롬나비는 “그동안 촛불을 들었던 태극기를 들었던 바로 지금 우리 모두 합심하여 이번 현재 판결을 존중하지 않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들었던 그 촛불은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정의감을 표

현하는 촛불이 아니며 우리가 들었던 그 태극기 역시 더 이상 우리 자신의 애국심을 표현하는 태극기가 아니”라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한국교회 신자들은 현재 판결이 나온 지금 촛불과 태극기를 내려놓고 정의가 총만하시고 참 주권자이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민족과 이 땅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며 “5월초 대선에서 국민을 섬기고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치유하고 통합할 정로운 지도자가 대통령으로 선출되도록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영 기자

장애 극복하고 한남대 교수된 32세 박경순 박사

“오늘 제가 걷는 발자국, 뒷사람의 이정표 됐으면”

초등학교 시절 불운의 교통사고로 인한 1급 지체장애를 당당히 극복하고 대학 강단에 선 30대 청년이 있다. 주인공은 지난 2월 한남대 전기 학위수여식에서 행정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한남대 행정학과 겸임교수로 임용된 박경순 씨(32)이다. 그는 3월부터 행정학과와 사회복지학과에서 ‘공직특강’과 ‘행정학 개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 때, 등굣길 트럭에 치어 두 다리를 잃고 1급 지체장애인이 됐다. 1994년 아홉 살의 어린 나이였던 그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고였다. 하루 아침에 휠체어와 의족에 의지해야 하는 처지에 낙망할 수도 있었지만, 그와 가족은 좌절하지 않았다.

사고 이후, 불편해진 몸 때문에 주변에서는 조심스럽게 장애인학을 다닐 것을 권유했지만, 그의 부모는 졸근 그를 일반 초·중·고교

에 진학시켰다. 박 교수도 장애에 굴하지 않고 어릴 적부터 꿈꾸던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가족과 친구,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곳곳이 학업에 매진했다.

박 교수는 “또래 친구들과 뛰어다닐 순 없었지만, 중학교 시절 음악 선생님의 배려로 합창단원으로 노래하고, 고교 시절 체육선생님의 배려로 친구들과 배드민턴도 쳤다. 문학시간에 정지용 시인의 향수를 친구들 앞에서 멋지게 노래 부르던 것이 기억에 남는다”고 회상했다.

그는 2005년 한남대 행정학과에 입학한 후 전공과 교직 수업을 들으며 교사의 꿈을 이루기 위해 힘없이 노력했다. 모교인 대전 동신고에서 교생실습을 했고, 대학 4학년 때는 한국공공행정학회 논문대회에서 입선하는 등 알찬 대학생활을 보냈다. 노력의 결실로, 대학졸업 때 그는 행정학사 학위증 외에

복수전공인 공통사회 학위증, 중등정교사 2급 일반사회/공통사회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 및 제도 부족 등에 문제의식을 더 깊이 갖게 된 그는 교사의 꿈을 잠시 접고 좀더 공부하기 위해 대학원 진학을 선택했다.

2009년 3월 한남대 대학원에 입학해 8년 만에 석사와 박사과정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지난달 명예로운 박사학위를 받았다. 대학원 시절 장애인 고용 등을 연구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했으며, 한남대 기업정책연구소에서 정부 및 공공기관의 정책연구에 참여하는 등 학업과 연구에 몰두했다.

“제가 사람 복이 많은 것 같아요. 지도교수님을 비롯한 은사님들, 지인들의 도움과 배려가 있었기에 이만큼 멀리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은혜를 후배들과 제자들, 그리고 지역



박경순 교수와 동료들

사회와 나누고 싶습니다.”

그는 2015년부터 이 학과 김철희 교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설립한 ‘마중물장학회’의 일원으로 후배들에게 매년 일정액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마중물장학회’를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발전시켜 후배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 프로그램들도 기획하고 있다. 또 대전지역 시민단체와 장애인단체 활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봉사할 계획이다.

그는 학창시절부터 소중한 지인들과 나눈 메일, 손 편지, 메시지 등의 기록을 책으로 제본해 간직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그 책을 보며 다시 힘을 얻고 꿈을 꾸다고 말한다.

박 교수는 “학생들과 나이 차이가 많지 않아 편한 선배이자, 친근한 교수가 되고 싶다”며 “행정·정책분야의 전문가로서 제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다하고, 오늘 제가 걷는 발자국이 뒷사람의 이정표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대웅기자



연무대교회 새 예배당 조감도. ©한국기독교군선교연합회

새에덴교회, 군복음화 위해 5억 현금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 지원하기로

새에덴교회(담임 소감석 목사)가 군복음화를 위해 논산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 건축에 5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육군훈련소 연무대교회에서 진중세례식을 주관한 새에덴교회는 이 같은 뜻을 훈련소 측에 전달했다.

새로 지어질 연무대교회는 약 1만 5천 평의 대지에 지상 3층 규모, 총면적 약 2천 평의 철근 콘크리트 건

물로 지어진다.

이 교회가 완공되면 5천 명에서 최대 6천5백 명을 한꺼번에 수용하는 등 군선교와 청년 복음화의 전초기지로서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무대교회는 현재 2천2백석 규모의 예배당에서 매주 평균 약 5천~7천 명이 2부로 나눠 예배드리고 있다.

김진영 기자

Be Happy Foundation

행복재단

비영리재단으로

새롭게 출범합니다

알 리 는 글

사회봉사, 선교, 긴급구호 및 전문인들의 재능기부를 받아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 화해중재원사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행복재단이 내외 귀빈들을 모시고 창립대회를 갖고자 하오니 기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시

2017년 3월 20일(월) 오후 6시

장소

용수산식당(별관) T(213)388-3042
950 S Vermont Ave, LA, CA 90006

문의

T(323)870-5522, (714)706-2727

이사장

조선훈, 회장 오진형 배상

과학혁명과 계몽주의, 중세 기독교 흔들어

윤영휘 박사 홍성강좌 특강

종교개혁 500주년 역사특강 ‘홍성강좌 2017’ 봄학기 강좌 ‘서양 근대교회사: 혁명의 시대와 그리스도교(18-19세기)’ 강연이 14일 오후 서울 합정동 양화진책방에서 진행됐다.

윤영휘 박사(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선임연구원)는 이날 ‘도전: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그는 강연을 통해 “①무신론자들과 회의자들은 늘상 있었는데, 왜 18세기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가 특히 위협적이었는가? ②그 회의에 긍정적 요소는 없었는가? ③현대 교회가 가진 이슈와 어떻게 연결되는가?”라는 3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나갔다.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는 종교개혁 이후 16-17세기 내내 일어났던 종교전쟁에서 기인한다. 각 나라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난 종교전쟁과 대대적인 전염병 등은 종교 자체에 대한 관심을 저하시켰고, 이렇듯 기성 종교가 채워주지 못한 정서적 빈 공간을 건드린 것이 과학혁명을 기초로 한 합리주의와 계몽주의였다.

윤 박사는 “계몽주의를 너무 기독교의 ‘안티 테제’ 즉 둘 사이를 적대적 관계로만 보기 쉬운데, 양자 간 관계는 의외로 생각보다 복잡했다”며 “기독교가 화석화된 정통주의로 변하자 계몽주의가 나타났다”고 곧잘 도식화하지만, 계몽주의의 주 원인은 정통주의가 아니라 자연과학과 철학의 발달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몽주의가 반대했던 것은 종교 자체가 아니라 그리스도교의 이데올로기적 성향과 그로 인해 나타난 교조주의였고, 당시 계몽주의자들은 기본적으로 신(神) 관념을 유지하고 구원 신앙을 보존했다”며 “계몽주의가 비합리적인 권위는 모두 무시하면서 성경을 최고 권위로 여기는 프로테스탄트에 직접적인 위협을 가져다 주는 등 잠재적 위험성이 있었다”고 했다.

이 시기의 과학혁명은 첫 번째 ‘계몽주의의 사상적 배경’이었다. 그는 “당시에는 신학과 과학의 경계가 뚜렷하지 않았고, 신을 찾고 신이 만든 자연의 원리를 찾는 과정에서 과학이 발전했다”고 소개했다. 자연현상은 ‘증명의 대상’이 됐고, ‘그리스도교 세계관이 틀린 것 아닌가’ 하는 회의도 여기서 시작됐다.

사상적 배경으로는 먼저 ‘합리주의’가 있다. 그는 “‘모든 것에 대한 의심’을 강조한 데카르트도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말로 상징되는 ‘의심하고 있는 주체’와, 불완전한 우리에게 ‘완전한 존재’라는 개념을 넣어준 ‘신의 존재’ 두 가지에 대해서는 의심할 수 없는 진리라고 했다”며 “그러나 데카르트의 ‘신의 존재’ 증명은 역설적으로 기독교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있었다”고 했다.

둘째로 로크의 ‘경험론’이 있다. 그는 “데카르트는 선악 구분과 신을 향한 마음 등 인간이 원래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인정했지만, 로크는 마치 컴퓨터의 ‘기본 사양’과 같은 이 ‘본유 관념’ 자체를 부정했다”며 “로크는 모든 지식이 ‘경험’에서 나온다고 생각했다. 이에 ‘계시’의 경우 우리에게 상당한 지식을 주는 것으로써 중요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개연성 차원’의 지식으로 봤다. 그래서 종교적 관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윤 박사는 “인간은 하나님과 너무 많은 질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만큼 이해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 종교’라 부르는 것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만큼만 우리의 수준에 따라 설명해 주시지만, 이는 우리가 알고 믿기에 충분하다”며 “그러나 이 시대부터 인간은 이성으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여기서 나온 것이 계시를 이성에 비취 합리적인지 판단하는, 종교와 이성의 타협적 형태로서 18세기의 주된 사조인 ‘이신론(Deism)’이었다. 세계를 창조한 하나의 신을 인정하지만, 그 신의 인간사에 대한 개입은 부정하는 것이다. 그는 “이신론자들은 그래서 성경 중 받아들일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나눴다”며 “신 자신조차 지켜야 하는 법칙이 있다는 것으로, 이신론은 이 시기 주된 사조였지만 너무 난해해 민중의 마음을 건드리지 못하면서 사회적 영향력이 미미했고, 18세기 말로 가면서 무신론으로 나아가게 된다”고 했다.



윤영휘 박사가 강의하고 있다.

계몽사상이 기독교에 끼친 영향으로는 합리주의자들을 의식하기 시작하면서 신학과 철학이 분리되고, 설교에서 이성적·합리적 예들이 많아졌으며, 초자연적 성경 이야기나 신 증명 같은 교리적 논쟁을 포기하는 대신 합리주의자들도 인정하는 도덕적 이야기들로 성경을 변화시켰다는 것 등이 있다.

‘그리스도교 계몽주의(Christian Enlightenment)’도 있었다. 이들은 과학과 신앙의 조화를 추구했고, 맹목적 신앙을 경계하면서 종교 안에서의 합리성을 옹호했다. 그는 “이들이 이신론자들과 달랐던 점은, 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이성중심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성과 동맹을 맺고 이성을 받아들였다는 것”이라며 “이들은 스스로 계몽주의와 달리 맹신(신앙 만능)과 무신(이성 만능) 사이, ‘현명하고 계몽된 경건’이라는 중도의 길을 개척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18세기 중반으로 가면서 ‘그리스도교 계몽주의’는 퇴조한다. ‘그리스도교가 이성과도 잘 맞아서 사실이 되는 것’이라면, 이성 혼자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퍼진 것이다. 이들은 결과적으로 ‘계몽주의와 기독교’ 둘 중 하나의 길뿐임을 깨닫고, 18세기 말로 갈수록 감정에 호소하게 된다.

윤영휘 박사는 앞서 했던 질문들에 답하면서 강의를 마무리했다. 먼저 ‘왜 18세기의 그리스도교 세계관에 대한 회의가 특히 위협적이었는가?’에 대해선 “지동설이 맞다 해서 기독교가 틀린 건 아니었다. 그러나 이성주의자·계몽주의자·합리주의자들의 도전은 그리스도교 상을 ‘비합리적·비이성적’으로 왜곡시켰다”며 “실제로 흔들린 것은 비과학적·비합리적 주장을 시대착오적으로 기독교 세계관과 연결시킨 ‘중세적 그리스도교’였지만, 당시의 기독교는 곧 ‘중세적 그리스도교’였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둘째로 ‘위험적이기만 했는가, 그 회의에 긍정적 요소는 없었는가?’에 관해선 “성경은 애초에 이성과 계시의 분리를 말하지 않았고, 오히려 초대교회 때부터 그리스도교는 신앙과 철학을 분리시키려는 이원론적 시도들과 싸워왔다”며 “이 유산을 잃은 채 오랜 기간 양자를 상충되는 것으로 봤으나, 합리주의자들의 공격을 받다 보니 그 유산을 다시 회복하고 양자를 조화시키려는 시도가 시작됐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현대 교회가 가진 이슈와 연결’과 관련해선 ‘세속화’와 연관지었다. 그는 “세속화는 19세기부터 시작됐지만, 18세기의 과학혁명과 계몽주의는 세속화 현상의 기원이 됐다”며 “18세기 사람들은 아직도 대부분 교회 내에 있었기에 감지하지 못했지만, 그때 시작된 기독교에 대한 사상적 도전들은 세속화의 문을 열었다고 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특히 세속화의 표지로 가장 눈에 띄지만 가장 늦게 나타나는 ‘신도 수 감소’와 적당히 눈에 띄고 적당히 늦게 나타나는 ‘사회적 영향력 감소’, 가장 눈에 띄지만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지적 영향력 감소’ 세 가지를 꼽았다. 그는 “지적 영향력 감소는 가장 핵심적인 도전이나 오랜 시간 서서히 일어나 감지하기가 어렵다”며 “이 시대에 성경과 과학 지식이 충돌하고, 기독교 신앙이 삶의 전 분야에 적용되는 진리라는 전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윤 박사는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 대학원 서양사학과에서 석사 학위를 받았다. 영국 워릭대학교에서 철학 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서울대 역사연구소 선임연구원, 광주대 인문사회과학연구소 HK연구교수를 거쳤다. 이대웅 기자



LA 지역	
1부예배 오전 8:00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20(월-금) 점심이 예배 오후 2:22 오전 6:20(토) 주일-바질종학교 / 토요새벽 -17와 버몬트 코너 주중새벽-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LA사랑의교회 평신도를 깨우고 이만사를 택함하며, 이만사정을 치료하며, 선교영향을 순종하는 교회 520 S. La Fayette Park Pl, #450, Los Angeles, CA 90057 주중연락처 T. (213) 386-2233 김기섭 담임목사 www.LASarang.com	주일예배 오전 11:2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전 11:20 토요 새벽기도회 오전 6:00 학생, 청년부 예배 오전 11:20 LA 온하늘교회 1540 S. St Andrews Pl., Los Angeles, CA 90019 T.(818)983-9024 연제선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 - 토) 수요기도회 오후 7:30 LA세계선교교회 선교를 통해 행복함, 사랑의 공동체 1025 S Catalina St, Los Angeles, CA 90006 T.(213) 909-6473 / www.missionla.org 장태원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어린이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Youth예배 오전 11:00 토요연합새벽 오전 6:20 갈릴리선교교회 함께웃고 함께우는 공동체 2212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35-6412 / gmcchurhc.com 한천영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2부예배 오전 10:3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후 12:45 유초등부 오후 12:30 금요기도회 오후 7:00 중고등부 오후 12:45 갈보리믿음교회 피난처 되시는 예수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제자들의 공동체 3300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T. (213) 365-8880 / F. (213) 365-8802 강진웅 담임목사	주일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월-토) 오전 6:00 매일 성경통독 (월-토) 오전 7:00 나눔과 섬김의 교회 세상속에 나아가 나누고 섬기는 교회 1508 S. Vermont Ave., LA, CA 90006 T. (213) 272-6031 엘리아 김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40 EMO예배 오전 11:30 2부예배 오전 9:30 새벽예배 오전 5:30 (월-토) 3부예배 오전 11:45 수/금요일예배 오후 7:30 나성순복음교회 성령충만함으로 말씀 위에 새운 뜻을 이루아가는 예배공동체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F. (323) 913-4494 진유철 담임목사	주일예배1부 오전 8:00 금요일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2부 오전 9:3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주일예배3부 오전 11:00 나성동산교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2525 W. James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323) 487-3920 박영천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화-금 오전 5:30 유초등부 중고등부 오전 11:00 토 오전 6:30 EM 예배 오후 1:00 토요공부방 토 오전 9:30-12:30 한여침년부 오후 1:30 어머니기도모임 수 오전 10:30 나성서부교회 영적 생명이 넘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영적 리더십을 발휘하는 교회 1218 S. Fairfax Ave., LA, CA 90019 T. (323) 939-7323 / www.kwpcla.org 서건오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7:30 성인 EMO예배 오후 2:00 2부예배 오전 11:30 한여침년예배 오후 2:00 3부예배 오후 1:00 천왕예배 오후 3: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시 나성열린문교회 하나님나라의 비전을 실현하는 교회 3281 W. 6th St., LA, CA 90020 T.(213) 383-2600, (213) 383-2602 / laopendoor.org 박현성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6:00(토) 중고등부 EM 오전 11:00 나성제일교회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믿음의 공동체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 T. (213) 388-7101 김문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유초등부,중고등부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회 주일 오후 1:30 수요집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화-금) 오전 6:00(토) 남가주광염교회 말씀과 기도로 비상하는 은혜공동체 1153 Valencia St., Los Angeles, CA 90015 T.(213)598-0191 정우성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0:30 중고등부 예배 주일 오전 10:30 EM예배 주일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월-금) 침년부 예배 주일 오후 1:30 목요찬양예배(목요일)오후 7:30 교회학교 주일 오전 10:30 산타모니카교회 죽도록 섬기는 교회 1520 Pearl St., Santa Monica, CA 90405 T. (310)502-9999 / www.smkc.us 김경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주일학교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EM예배 오전 10:00 써니사이드교회 하나님을 기쁘게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 예수 안에서 행복한 공동체 1183 S. Hoover St., Los Angeles, CA 90006 T. (213) 389-0691 / F. (213) 389-0694 조인수 담임목사
주일예배 오전 11:00 성경공부 주일오후 12:00 토요일복인 모임 오전 11:00 나눔장로교회 엔키아 선교회 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넘치는 교회 3407 W. 6th St. #412, Los Angeles, CA 90006 T. (310) 404-6219 김영구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화-토) 오전 6:00 열매교회 전도하는 교회 1938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18 T.(323)737-3009 C. (213)215-8523 김요섭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20 (월-금) 에향선교교회 복음의 향기로 지역과 열방을 섬기는 교회 4323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T. (213) 281-1196 / Eisaacdcw@hotmail.com 김종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30 금요기도회 오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금) 오전 5:30 3부예배 오전 1:30 올림픽장로교회 세상을 구원하고 행복을 주는 교회 맑은 말, 마음, 몸, 열매 3250 Wilshire Bl. #160, Los Angeles, CA 90010 T.(213)387-1700 C.(213)500-4737 / olympic-church.org 정장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오전 6:00 (토) 임마누엘선교교회 행복한 성도,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1818 S. Western Ave., #200, Los Angeles, CA 90006 T. (323) 766-9922 / www.laimch.com 류종길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3부예배 오후 1:00 2부예배 오전 10:30 수요/금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 (월-토) 주님의영광교회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고, 성가도 사랑하는교회 1801 S. Grand Ave., Los Angeles, CA 90015 T. (213) 749-4500 / F. (213) 749-6700 신승훈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9:00 금요기도회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중고등부, 유초등부 오전 11:00 4대 사역 : 유아원 사역, 후드 사역, 장학 사역, 십자가 사역 청운교회 선교에 초월, 소, 천 초 정신의 초월, 바른교회관의 초월 4465 Melrose Ave., Los Angeles, CA 90029 T. (323) 667-9920 이명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EM 1부예배 오전 9:30 2부예배 오전 9:30 EM 2부예배 오전 11:30 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교육부 오전 11:30 새벽예배(매일) 오전 5:30 충현선교교회 불러서(Calling), 고치고(Healing), 기르며(Maturing), 맞선다(Confronting)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818)549-9191 / F.(818)549-9199 / choonghyun.org 민종기 담임목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기도회 오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한글학교주일오전10:00 새벽기도 오전 5:30 (월-금) 유초등부 오전 11:00 오전 6:00 (토) 중고등부 오전 11:00 한마음제자교회 십자가와 부활 위에 선 한마음제자교회 500 Shatto Pl. #410, Los Angeles, CA 90020 T.(213)321-4433 곽부환 담임목사	1부예배 오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예배 오전 5:30(화-토) 수요일예배 오후 7:30 한우리장로교회 말씀과 예배가 살아있고 치유와 회복이 있으며 성도와 전도하는 교회 1932 10th Ave., Los Angeles, CA 90018 T. (323) 702-6709 강지원 담임목사
주일감사예배 : 주일 오전 11:00 수요성경공부 : 저녁 8:00 새벽기도회 : 오전 5:30(월-금) 교역자형집회 : 저녁 8:00 세간영한학교 : 토요일 오전 10:30 교회학교(Child Youth) : 매주 주일 오전 11:00 남가주 새언약교회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 3407 W. 6th St, #601, #620, LA, CA 90020 T.(213)465-9693, (213)434-1083 www.new2011.org 강양규 담임목사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읽는 90일 성경일독 대표 주해홍 목사 오늘 성경 읽으셨나요? 에스라성경통독사역원 Ezra Bible Reading Ministry 1661 Raymond Ave. #265, Anaheim, CA 92801 www.ezrabiblereading.com

LA 동부, 팜스프링스 지역, 라스베가스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예배 오전 11:00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성경집회 오후 8:00
3부영아예배 오후 1:00 금요성경공부 오후 8:00
어린이예배 오전 11:00

갯스윙연합교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904 E. D St., Ontario, CA 91764
T. (909) 268-4279 / gwa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10:30 새벽기도회(화-금) 오전 5:30 **김성원** 담임목사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토요일) 오전 6:00
주일학교 주일오전 10:30

남가주새소망교회
New Hope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50 S. Rosemead Blvd., Pasadena, CA 91107
T. (626) 872-2405 교회, (503) 332-1941
www.newhopechurchla.com

1부예배 오전 8:00 **고태형**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00
4부예배 오후 1:0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화-금) 오전 5:30, (토) 오전 6:30

선한목자교회
선포하고 가르치는교회

2600 Grand Ave., Chino Hills, CA 91709
T. (909) 591-6500 sunhanchurch.org

1부예배 오전 7:30 EM 1부예배 오전 9:30 **박신철**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15 EM 2부예배 오전 11:45
3부예배 오전 11:45 수요알렘강해 오후 7:30
4부 청년예배 오후 1:45 새벽기도회(월-금) 5:30 (토) 오전 6:00

인랜드교회
예수의 온전한 제자되어 사명을 위하여 사는 교회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F. (909) 622-1480 / inlandchurch.org

주일예배 오전 9시 (저성전) 금요일예배 오후 7:30
오전 11시 (본성전) 매일QT 월-금 오전 6:00
토요일예배 오전 6:00
본성전: 75580 E. Ramon Rd., Thousand Palms, CA 92276
저성전: 66700 E. 5th St., Desert Hot Springs, CA 92240

팜스프링스한인감리교회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는 교회”

T. (760) 636-2675 / pspkmc.com

1부예배 오전 8:00 성경공부 오후 7:30 (화) **송재호**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7:30
종보기도일 오전 10:30 EM 성경공부 오후 7:00 (금)
금요성경공부 오후 7:00

할렐루야한인교회
제자된 삶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랑의 공동체

19648 Camino De Rosa, Walnut, CA 91789
T. (909) 595-3110 hnsa@hnsa.org

사우스 베이 지역

주일예배 오전 11:00 **이상훈** 담임목사
성경공부 훈련 오후 2:00
금요 중보기도회 오후 7:30

주비전교회
하나님 마음으로 열방을 열자

1626 W. Gardena Blvd. #D, Gardena, CA 90247
T. (714) 296-6783 www.sbhivision.org

1부예배 오전 8:00 EM예배 오후 1:30 **김준식**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30 한아침년부 오후 2:15
3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6:00

남가주샬롬교회
Shalom Church of Southern California

20050 S. Vermont Ave., Torrance, CA 90502
T. (310) 787-1004 shalomch.org

1부예배 오전 9:00 새벽기도 오전 5:15 (화-금) **서보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유/초등부 오전 11:00
3부예배 오후 1:30 주일학교 중/고등부 오전 10:00
수요예배 오후 8:00 성가대연습 오전 10:20

둘로스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삼는 교회

1925 Marine Ave., Gardena, CA 90249
T. (310) 951-3153 / doulous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성규**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월-토) 오전 5:50
3부예배(청년부) 오후 1:30 금요성령대회 금 오후 7:20
EM예배 오전 11:00

주님세운교회
Vision 7300으로 지역사회와 세계복음화에 헌신는 교회

2911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T. (310) 325-4020 / F. (310) 325-4025

파사데나, 라크라센타, 라캐나다, 글렌데일, 밸리, 벤추라, 버뱅크 지역

주일 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7:20 **권오균** 담임목사
주일 성경공부/세교구반 새벽예배 오전 7:00 (토)
오후 1:00

글렌데일한인장로교회
예수님을 붙잡고, 자라는, 건강한 교회!

4002 Verdugo Rd., Los Angeles, CA 90065
T. (323) 254-4012 / gkpcchurch.com

1부 예배 오전 8:00 한글학교 주일 오전 10:00 **방수민** 담임목사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금)
종교동부 오전 11:00 Awana 오후 8:00 (금)
유년부 오전 11:00 Youth Friday Service 오후 8:00 (금)
EM 오후 1:00 새벽예배 오전 5:30 (월-금)

베다니한인교회
문턱낮은 교회 변화받는 교회 찬미하는 교회

2401 N. Brighton St., Burbank, CA 91504
T. (818) 845-5431 F. (818) 845-1683 / bkchurch.org

주일예배 1부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후 1:30 **박정환** 담임목사
주일예배 2부 오후 1:30 새벽 해마 기도회 오전 5:30(월-금)
EM/YOUTH 예배 오후 1:30 금요일예배기도회 오후 7:45

예수인교회
Christian Missional Church

10452 Louise Ave. Granada Hills, CA 91344
T. (424) 229-6597 / cmc-12.com / yesuin2@gmail.com

1부예배 오전 8:00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00 **신용환**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유초등부 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0:00 유치부 예배 오전 11:00

나성한미교회
축복의 통로되어 만물을 새롭게 하는 십자가 공동체

2727 N. Durfee Ave., El Monte, CA 91732
T. (626) 444-0058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수요기도회 오후 7:30 **조종철** 담임목사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금)
오전 6:00(토)

라스베가스갈보리장로교회

6554 W. Desert Inn Rd., Las Vegas, NV 89146
T. (702) 579-7576

1부예배 오전 7:45 종교동부 예배 오전 11:45 **고송희**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9: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3부예배 오전 11:45 오전 6:00 (토)

아름다운교회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 교회

1717 S. Otterbein Ave.,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810-3455 / F. (626) 964-5559

1부예배 오전 8:00 수요예배 오후 7:30 **이춘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9:00
창대교회 사랑의 나눔터(매주 토) 오전 10:00-11:00
새벽예배 오전 6:00(화-토)

창대교회
하나님께 영광!

3630 N. "E" ST., San Bernardino, CA 92405
T. (909) 388-2940

1부예배 오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 (화-금) **이승준** 담임목사
2부예배 오전 10:00 오전 6:00 (토)
3부예배 오전 11:45 금요기도회 오후 8:00

하나로커뮤니티교회
하나님의 꿈이 있는 공동체

18616 E. Rorimer St., La Puente, CA 91744
T. (626) 912-6600 / www.hanarochurch.org

문/서/선/교에 앞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KPCA 뉴욕노회 소속 교회들이 연합해 진행하고 있는 마사야전도대회가 3년만인 2017년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마사야 현지에서 진행됐다.

3년만에 다시 열린 마사야전도대회 454명 예수 영접

KPCA 뉴욕노회 소속 교회들의 협력선교

해외한인장로회(KPCA) 뉴욕노회 소속 교회들이 협력해 일궈왔던 마사야전도대회가 지난 2014년에 이어 3년만에 재개, 지난 2월 25일부터 26일까지 양일간 연인원 2만2천여 명의 마사야 지역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마사야전도대회는 KPCA 뉴욕노회 소속교회들이 협력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 2014년까지 7년 연속 개최하면서 수많은 현지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면서 이민교회들이 노회 차원에서 추진한 선교 중 가장 성공적인 선교 대회로 진행돼 왔다.

올해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목회자 세미나, 교사 강습회, 목회자 부부 진료 사역, 치과 검진 사역, 개인 전도 사역, 중보 기도 사역, 안경 검안 사역, 미용 사역, 네일 아트 사역, 어린이 사역 등이 전도대회와 함께 진행됐다.

또 이번 전도대회를 위해 뉴욕에일교회, 부산산성교회, 웨체스터장로교회를 비롯해 시카고 등 개인 자격 참여자까지 모두 70명의 단기팀이 한 마음 한 팀으로 사역했다.

전도대회 당일인 25일에는 마사야주에 속한 9개 시는 물론 마나구아, 파빠파빠, 가라스 등에서 모두 227대의 버스가 동원됐고 트럭 등에 타고 사람들이 밀려 오는 장관을 연출했다. 참석자들은 전도대회 장소인 마사야 광장에 설치한 7,000개의 의자를 다 채우고도 자리가 부족해 광장 입구에서 통로 전체를 가득 매웠다.

첫째 날인 25일에는 약 12,000여 명이,

둘째 날인 26일에는 10,000여명이 집회에 참여하며 은혜를 나눴다. 양일간 총 454명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은혜가 있었다. 첫날 많은 사람들로 인해 통로가 막혀 결신자들이 앞으로 나올 수가 없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다.

첫째 날에는 김종훈 목사가, 둘째 날에는 허원구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다. 또 시카고에서 온 듀엣 아이노스의 찬양을 비롯해 여태징 선교사가 지도하는 리코더 합주단, 김인선 선교사가 지도하는 니카라과 천사합창단, 단기팀이 진행하는 부채춤, 플룻 바이올린 연주, 바디워십 등의 다양한 순서로 전도대회가 진행됐다.

전도대회 둘째 날인 26일은 김영두 선교사가 섬기는 중앙장로교회의 연합 세례식을 오영관 선교사 사역지인 나실인 공동체에서 거행, 총 73명에게 세례를 베풀었다. 이어 오영관 선교사가 직접 건축한 호수중앙체플에서 준공 감사기도를 함께 드리는 기쁨도 나눴다.

이번 전도대회를 위해 단기팀은 총 8번에 나누어 입국했고 출국도 3일간에 걸쳐 이뤄졌다. 현지에 남아있는 선교사들은 아직도 시청, 경찰서 등을 방문하는 일정을 진행하고 있다.

니카라과는 뉴욕노회 등 한인교회를 비롯한 많은 기독교 단체들의 노력으로 지난 21년 전 5.6%에 불과했던 개신교세가 이제 30%를 넘고 있다. 마사야 지역에서는 마사야전도대회를 통하여 개신교의 큰 부흥이 일어났다고 현지인들이 증거하고 있다.



연합장로교회가 창립 40주년을 맞았다.

40주년 맞은 연합교회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

아틀란타연합장로교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는 감사예배가 특별한 외부행사 없이 조용한 가운데 드러졌다.

연합장로교회는 1977년 클레어몬트 장로교회에서 창립예배를 드린 이래 1995년 고 정인수 목사가 6대 목사로 부임하고 2002년 둘루스 새 성전 시대를 열면서 큰 도약을 이뤘다. 미래지향적인 교회, 진정한 평신도 사역이 이루어지는 교회, 지역사회와 미주 교계에 롤 모델이 되는 교회, 니카라과, 케냐 등 많은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해 왔다.

교회는 작년, 믿음의 거목이던 정인수 목사가 소천하면서 위기를 맞이하기도 했지만 사랑과 헌신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제 몫을 해 나가며 ‘위기는 하나님보다 크지 않았다’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날 예배는 제3대 목사였던 김선배 목사가 ‘하나님의 새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애틀랜타 노회 총무

제인 파헤이 목사와 복음주의연합 총무 조현성 목사가 축하했다.

김선배 목사는 “예수님처럼 낮아지는 교회,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웃들을 돌보고 세계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하나님 안에서 행동으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연합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현성 목사는 “지역사회가 연합교회에 거는 기대가 크다. 애틀랜타는 물론 한국과 미국에서 아름답고 복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도록 지도자들과 교인들이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연합교회가 되길 기도한다”고 축하했다.

임시당회장 심우진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건강한 교회로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헌신해 나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수영 기자



노아의 방주 박물관 외부 모습 ©arkencounter.com



방주 박물관 내부에는 여러 가지 조형물도 설치돼 있다. 사진은 방주 속 노아의 모습. ©arkencounter.com

“실제 노아 방주에 온 듯” 푸른투어와 함께 하는 관광

노아의 방주 박물관과 창조 박물관 관광 프로그램

푸른투어가 기독일보와 함께 노아의 방주 박물관, 창조 박물관 관광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이 프로그램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는 자녀들에게 성경 말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아의 방주 박물관은 개관 전부터 한인들에게 큰 관심을 불러일으켰지만, 박물관 한 곳만 방문하기 위해 비행기를 타는 것에 부담을 느끼던 이들에게 주변의 여러 관광지까지 한 번에 둘러보는 푸른투어의 관광 프로그램이 좋은 기회다.

푸른투어에서는 3박 4일, 4박 5일 코스를 마련해 놓고 봄 방학을 맞이하게 될 자녀들 혹은 이에 관심을 가진 여러 성도들을 초대하고 있다.

노아의 방주 박물관(Ark Encounter, www.arkencounter.com)은 2016년 7월 센터키 주 윌리엄스타운에 개관됐다. 노아의 방주를 성경적 고증에 따라 실제 크기와 모양으로 만들었다. 실제 크기의 방주 안에 역시 실제 크기의 동물 모형과 함께 방주를 체험하는 여러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방주 박물관을 기획한 창조과학단체인 AiG(Answers in Genesis)는 2007년 센터키 주 피터스버그에 창조 박물관(Creation Museum, www.creationmuseum.org)도 세운 바 있다. 두 박물관의 거리는 약 50마일 정도로 하루 만에 둘러볼 수 있다. 창조 박물관에는 진화론을 반박하

며 창조론을 지지하는 여러 가지 설치물과 체험관이 마련돼 있어 교육적 가치가 높다.

푸른투어의 4박 5일 일정은 LA에서 시카고를 향한 비행기에서 시작된다. 시카고에서는 밀레니엄 공원, 자연사박물관 등 다운타운을 관광하고 인디애나폴리스를 경유하며 주 의사당을 둘러 본다.

셋째 날이 본 코스로 창조 박물관과 방주 박물관을 지나 신시내티 내셔널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프리티엄 센터에 도착한다. 프리티엄 센터는 인간의 발전과 수호에 관한 다양한 전시물을 만날 수 있어 교육에 유익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에는 링컨 생가 박물관에 이어 세계 최장 동굴이 있는 맘모스 케이브 국립공원에 가는 것으로 일정을 마친다.

3박 4일 일정은 기간이 좀 짧지만 흥미로운 관광객들이 포진해 있다. LA에서 출발해 신시내티에서 비행기를 내린 후, 곧장 센터키 주로 이동해 미국 야구 방망이의 40% 이상을 생산하는 루이빌 슬러거 공장을 관광하고 링컨 생가 박물관으로 간다. 둘째 날에는 음악의 도시 내슈빌을 관광하고 센터키 프라이드 치킨 제 1호점에도 들른다. 마지막 날 노아의 방주 박물관을 관람하는 것으로 일정을 마치게 된다.

문의) 213-739-2222

주소) 3170 W. Olympic Bl. #A
Los Angeles CA90006



방주 내부의 모습 ©arkencounter.com

1부 예배 오전 8:30
2부 예배 오전 11:00
금요성경집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

김인식 담임목사

웨스트힐장로교회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제자가 되어 3300 세계를 진을 이루는 성령공동체
 23350 Welby Way, West Hills, CA 91307
 T. (818) 884-2391

발리채플 Valley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8:45
주일 2부 예배 오전 11:45
새벽예배 월-금 5:00, 토 6:00
19514 Rinaldi St., Northridge, CA 91326
T. (818) 363-5887

최 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T. (818) 363-5887 / www.In-ChristCC.org
 e-mail: iccc.office1@gmail.com

O.C./얼바인 지역

결혼교실, 사모교실, 부부교실, 아바지교실
 www.GodFamily.com
 www.CMFm.org

김철민 장로

CMF선교회
 가정들 새우는 CMF Ministries
 3463 1/2 Pumice St., Norwalk, CA 90650
 T. (562) 483-0191 / (714) 493-0191

1부예배 오전 7:30
2부예배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한여대학생예배 오후 2:00
새벽기도회 5:30(월-금) 6:00(토)

김영길 담임목사

감사한인교회
 사랑받고 사랑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에 정성을 다하는 교회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521-0991 / F. (714) 521-4636
 www.thanksgivingchurch.com

주일 1부예배 8:00 AM
주일 2부예배 11:00 AM
주일 3부예배(영어) 1:30 PM
금요찬양예배 7:30 PM

이원준 담임목사

남가주가스펠교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학교 오전 11:00

박재만 담임목사

남가주순복음교회
 죽어가는 세상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는 교회
 3111 W. Orange Ave., Anaheim, CA 92804
 T. (714) 952-0191 / www.socalfgc.com

주일예배(KM) 주일 11:00am
영어예배(EM) 주일 9:00am (매일 두번째 금)
교육부예배 주일 11:00am
(교우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안창훈 담임목사

늘푸른선교회
 Mission Community Church
 2216 E. South St., Anaheim, CA 92806
 T. (714) 808-9191 / www.missionways.org
 mcc.office_email@gmail.com

주일예배 1부 오전 8:30
2부 오전 10:30
3부 오전 12:20
4부 오후 2:00(젊은이예배)

고현중 담임목사

디사이플교회
 17502 Daimler St., Irvine, CA 92614
 T. (949) 502-4923 / www.disciplecc.org

1부예배 오전 7:15
2부 오전 9:15
3부예배 오전 11:30
청년예배 오후 2:00

김한요 담임목사

베델한인교회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T. (949) 854-4010 / F. (949) 854-4018

1부예배 오전 9:00
2부예배 오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토요찬양학교, 엑스프레스

이동준 담임목사

얼바인 아름다운 교회
 17702 Cowan, Irvine, CA 92614
 T. (949) 250-1111 / www.beautiflul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우대권 담임목사

영광빛복음교회
 주의 권능, 치료의 광선을 행하고 알리는 교회
 14515 Blaine Ave., Bellflower, CA 90706
 T. (213) 291-5901 / (714) 833-2568 daekwo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9:45
3부찬양 오전 11:30
수요예배 오후 7:30

남성수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한인교회
 영혼을 구원하며 제자삼는 교회
 14381 Magnolia St.,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3-1652 / kccroc.com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청년예배 EM 오후 1:30
히스패닉 예배 오후 6:00

주혁로 담임목사

주님의빛교회
 5271 Lincoln Ave., Cypress, CA 90630
 T. (714) 252-9191 / www.lordlight.org

주일 성령이 예배 : 오전 9:00am
주일 한국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영어 예배 : 오전 11:00am
주일 유초등 예배 : 오전 11:00am

임경남 담임목사

토기장이교회
 1808 W. Lincoln Ave., Anaheim, CA 92801
 T. (714) 234-5338 / www.pottersccc.com
 E-mail: info@Pottersccc.com

주일예배 (1부) 10:00am
(2부) 1:30pm
새벽예배 (월-토) 5:00am
화요중보기도회 7:00pm

앤드류 김 담임목사

UBM교회
 3세대가 함께 성령안에서 자유롭게 예배하는교회
 1531 S. Sinclair St., Anaheim, CA 92806
 Tel: 714-634-8360, Cell: 714-600-7700 www.ubmchurch.com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영 유아부 오전 11:00
유 초등부 오전 11:00

민경엽 담임목사

나침반 교회
 모이는 교회 흠아지는 교회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T. (562) 691-0691 F. (562) 691-0698 / nachimbun.org

1부예배 오전 8:00
2부예배 오전 11:00
토요새벽예배 오전 6:00
대학청년예배 오전 11:00

오병익 담임목사

남가주 벨엘 교회
 예수님이 살아계신다고 소문난 교회
 5600 Crescent Ave., Buena Park, CA 90620
 T. (714) 806-2562 kpcadavid@yahoo.com

1부 주일예배 오전 8:00
2부 주일 영어예배 오전 10:00
3부 주일예배 오후 1:30

허귀암 담임목사

놀익연합감리교회
 Norwalk United Methodist Church Korean Ministry
 13000 San Antonio Dr., Norwalk, CA 90650
 T. (562) 802-4959 C. (714) 308-7308 / usa8291@gmail.com

주일예배 오전 11:30
금요예배 오후 8시
새벽예배 (월-금) 오전 5:30

김일권 담임목사

다감사교회
 The Gamsa Community Church
 2000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714) 988-3321, www.dagamsachurch.org

1부예배 오전 8:45
2부예배 오전 11:00
중고등부 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9:30

이 서 담임목사

미주비전교회
 역동적인 예배가 살아있는 비전공동체
 2536 W. Woodland Dr., Anaheim, CA 92801
 T. (714) 821-9900, 9901 / visioncc.org

주일예배 1부 오전 7:30
2부 오전 9:15
3부 오전 11:30
4부 오후 2:00

권혁빈 담임목사

얼바인온누리교회
 17200 Jamboree Rd., Irvine, CA 92614
 T. (949) 261-9100 / vision.onnuri.org

1부예배 오전 7:30
2부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1:30

박경호 담임목사

얼바인 침례 교회
 하나님의 인재를 양성하는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
 T. (949) 857-9425 / www.irvinechurch.com

주일 1부예배 오전 8:1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45
영어주일예배 오전 10:00

염영민 담임목사

오렌지카운티제일장로교회
 열린교회, 주는교회, 키우는교회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891-2029, 898-1068 F. 714-373-3097

1부예배 오전 7:30
2부 오전 9:30
3부예배 오전 11:30
4부예배 오후 2:00

한기홍 담임목사

은혜한인교회
 행복찬 교회 삼급반는교회 세계선교를 마무리짓는 교회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 (714) 446-6200 / F. (714) 446-6207

플러튼 채플 Fullerton Chapel
 주일 1부 예배 오전 9:00
주일 2부 예배 오전 11:00
목요성경집회 7:45pm
새벽예배 월-금 5:30, 토 6:00

최 혁 담임목사

주안예교회
 In Christ Community Church
 117 N. Pomona Ave., Fullerton, CA 92832
 T. (657) 217-5558

주일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8:00

조원재 담임목사

하나님의 은혜교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교회"가 되자
 14706 Pioneer Blvd., Norwalk, CA 90650
 T. (213) 247-7440 / godsgracechurch.org



문의전화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뉴저지 본사
[201]313-0899
725 Grand Ave #305
Ridgefield, NJ 07657

플러싱 지사
[718]928-3333
154-08 Northern Blvd #2B
Flushing, NY 11354

로스앤젤레스 지사
[213]739-2222
3170 W. Olympic Blvd. #A
Los Angeles, CA 90006

토론토 지사
[647]686-6000
5467 Yonge Street, Suite 2B
Toronto, ON, M2N 5S1

서울 지사
[02]739-0890
Doosan We've 58 #1238
Jongno-gu, Seoul

여행설계사
데비드강의
여행이야기
AM 1650
매주 화 1:30pm

2017년 푸른투어와 **SBS** 가 함께하는

10차
11차

미국 대륙횡단

13박
14일

\$2,599

LA출발 ▶ 13박 14일 [항공포함 NY-LA]

특별출발 : 5월 23일

\$2,699

뉴욕출발 ▶ 15박 16일 [항공포함 LA-N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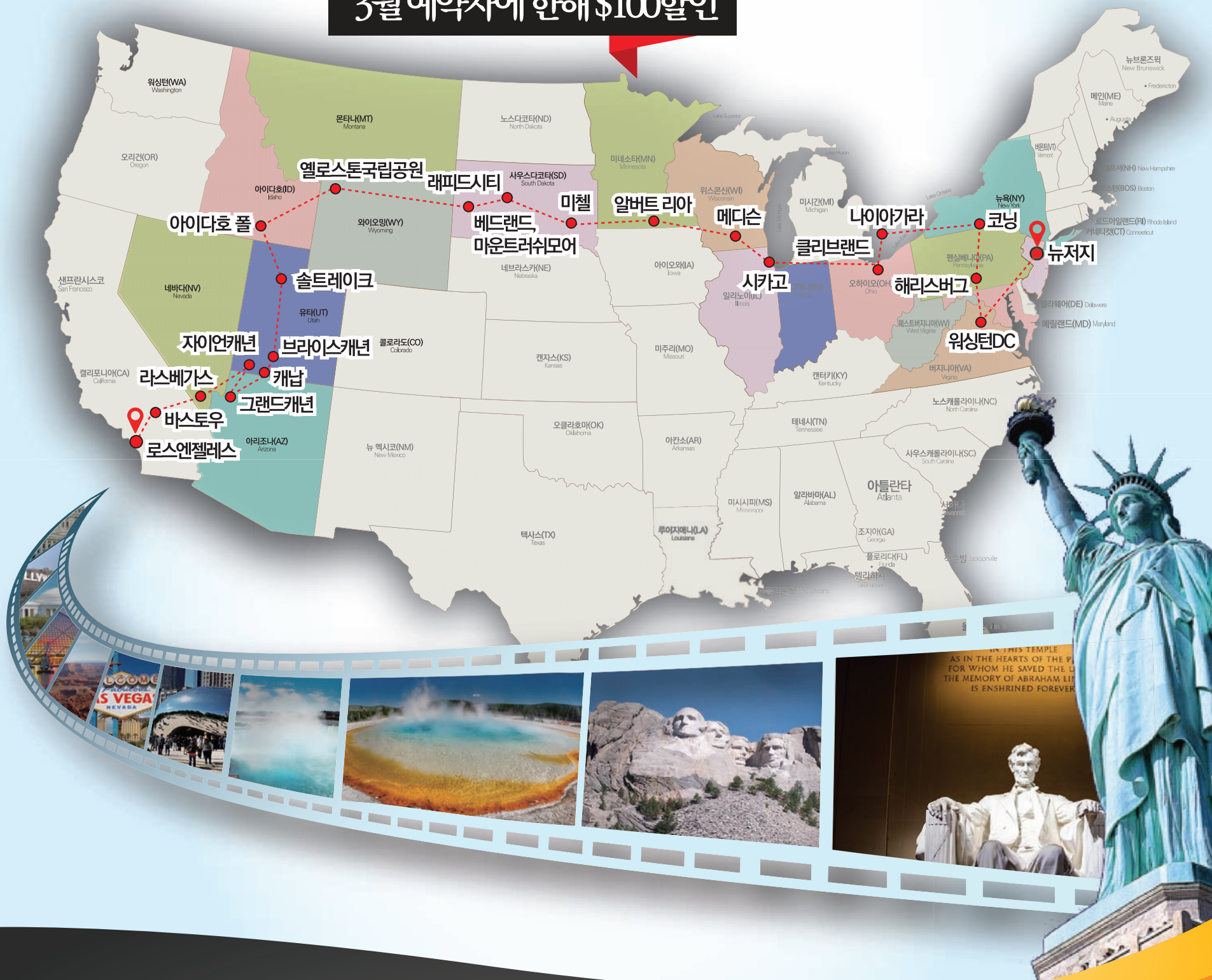
특별출발 : 6월 5일

나이아가라 폭포를 제대로 체험 혼블라워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 포함

자유의 여신상 유람선 전격 포함

3월 예약자에 한해 \$100할인



따로 가실 필요가 없어요~
미서부, 옐로스톤, 러쉬모어, 시카고, 뉴욕~
이번 대륙횡단으로 한 번에 다녀오세요!

푸른투어의 자랑

정통

대륙횡단

미국 5개 지사가
운영하는 푸른투어

Why

미국대륙횡단
푸른투어야만 할까요?

1

미동부 - 서부
모두 직접 행사하는
미국 유일의 여행사

2

지금까지 9차례에
걸친 대륙횡단 성공의
노하우 축적

3

대륙횡단
전문 가이드 동행으로
안전하고 즐거운 여행 보장

4

대륙횡단의
성공을 축하하는
수료증 증정

5

9차에 걸친 대륙횡단의
노하우로 최고의 코스와
최적화 된 여행 방법

세계 최고의 관광지 **라스베가스**, 바스토우와 천사의 도시 **로스앤젤레스**, 붉은 침탐의 향연 **브라이스 캐년**, 신의 정원 **자이언 캐년**, 경이로운 대자연의 위엄 **그랜드 캐년**, 세계 최초 국립공원 **옐로스톤**, **솔트레이크** 시티 시내관광, 건축의 도시 **시카고** 시내관광, 위스콘신주 **메디슨** 다운타운, **미첼시티** 미동부 투어 1번지 **워싱턴 DC**, **나이아가라** 관광, **클리블랜드** 락엔롤 명예전당



푸른투어 LA
PRT Tour & Consulting
cst# 212654040

213.739.2222
인터넷예약 www.PRTTOUR.com

무료픽업 가능 : 가든그로브/토렌스/세리토스/가디나/다이아몬드 바

광고상의 모든 컨디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으며, 항공상품은 비수기 기준으로 성수기시요금에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골란 고원 평야 ▶헬몬 산 옆 고원 호수와 이 지역에서 생산된 사과 ▶이스라엘 레이더 기지 앞에서 기도하는 성도들

■영성으로 가는 성지순례 이야기(26)

중동 평화를 기원하는 골란 고원

골란 고원으로 가는 길

지난 주에 귀신들의 울부짖음과 자유를 찾은 한 사내의 사연이 있었던 쿠러쉬(거라사) 지방에 관해 알아보았다. 오늘은 쿠러쉬를 떠나 골란 고원으로 가 보자.

쿠러쉬에서 골란 고원을 관통하여 골란 고원의 가장 높은 산이 있는 Merom Golan이 있는 곳까지는 87번 도로를 타고 888번 지방도로, 98번, 91번 도로를 타고 가면 29마일에 50분 정도가 소요된다. 이 도로로 가는 도중에는 골란 고원의 특징을 잘 볼 수 있는 풍경들이 있다.

또 다른 길 하나는 쿠러쉬에서 789번 도로를 타고 갈릴리 바다에서 골란 고원으로 올라가는 코스인데 789번, 869번, 808번, 87번, 98번, 9881번 도로를 경유하여야 한다. 이 코스는 40마일로 1시간 가량이 소요된다. 이 코스는 거의 시리아 국경 지대를 우측으로 바라보며 가는 도로로, 우리나라의 휴전선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그래도 시리아와의 분쟁으로 인한 긴장감이 감돈다.

골란 고원은 상당히 넓은 고원이라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다를 수 있고 풍경도 다를 수 있겠다. 오늘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는 사실 골란 고원을 관통하여 헬몬 산(Helmon Mountain) 남쪽 자락까지이다.

헬몬 산 남쪽 기슭에 있는 마을인 Majdal al-Shams은 쿠러쉬에서 789번을 타고 서쪽으로 진행하다가 92번, 888번, 91번을 지나 978번 도로를 타고 주행하면 약 1시간 8분 걸린다. 거리는 38마일이다. 겨울에는 눈길을 지나는 경우도 있고 목적지에 다다르면 헬몬 산의 웅장한 설산을 만날 수 있다.

또 다른 코스로 쿠러쉬에서 789

번(9마일), 98번(42마일) 도로를 지나는 길이다. 목적지까지는 1시간 20분 이상 걸리지만 이스라엘 군 레이다 기지 앞에서 시리아 자유의 마을과 유엔 마을을 볼 수 있고 멀리 다마스커스를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 좋다.

오늘날의 골란 고원

누가 말하기를 골란 고원은 곤란한 문제가 많아서 골란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사람들의 말처럼 해발 800m-1000m가 되는 골란 고원은 시리아와의 국경지대이기 어려운 지역보다 전방이라는 냄새가 난다. 사실 갈릴리 호수 북동쪽, 지금의 엔게브키브츠에서 상류 요단강까지 1967년 6월 6일 전쟁 이전에는 시리아 땅이었다. 그래서 그런지 유난히 지뢰밭이 곳곳에 눈에 띈다. 노란색 삼각형 표지와 철조망이 있는 곳은 어김없이 지뢰 지대이다.

1967년 6월 5일부터 6일간 벌어진 이스라엘과 시리아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바산의 암소 지대인 이곳을 점령하게 되었다. 남부길이 50마일, 동서 길이가 10마일쯤 되는 이 고원 지대에 이스라엘의 정예부대가 밀집되어 있다.

갈릴리 북동쪽에서 87번 도로를 타고 올라가면 황량한 고원 지대가 나타난다. 최전방답게 탱크부대와 레이더 기지가 곳곳마다 보인다. 해발-202m인 갈릴리 바다에서 해발 800m로 올라오면 건기인 여름에도 시원함을 맞볼 수 있고 우기인 겨울에는 눈이 쌓여 있을 때도 있다.

6일 전쟁과 골란 고원

기왕 골란 고원까지 올라왔으니

6일 전쟁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자. 전쟁은 1967년 6월 5일에 일어났고 6월 10일에 끝났다. 남쪽의 이집트, 동쪽의 요르단, 북쪽의 시리아가 연합해 이스라엘을 침공한 전쟁이다. 이스라엘은 독립 전쟁 때부터(1948년) 항상 전쟁에 대하여 대비하여 왔다고 볼 수 있는데 시리아 쪽에 첩자를 침투시켜 최고위층과 사감을 가지게 한 후 전쟁 발발시 이 첩자는 중요한 정보를 이스라엘로 보내어 이스라엘이 전쟁에 승리하도록 만든다.

전쟁 첫날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공군이 격파되었고 이스라엘은 시리아 반도 가자지구를 이집트로부터, 요단 서안지구를 요르단으로부터(동 예루살렘 포함), 골란 고원을 시리아로부터 차지하였다.

이집트 군은 7개 사단이 궤멸되고 탱크 600-700대가 부수어졌으며 100대가 포획되었다. 444대의 이집트 공군기가 박살나고 16개의 비행장이 파괴되었다. 이집트 비행사 350명 중 100명이 첫 공습에 사망하였다. 시리아 군은 유카리투스라는 암호명의 이스라엘 공군의 공습을 받게 되었다. 이 암호는 이스라엘 첩자가 이스라엘 군에 보낸 것으로 유카리나무 밑에 시리아 병커가 있으니 폭격하라는 암호이다.

결국 시리아는 대패하고 다마스쿠스 앞 40km 지점까지 밀리게 된다. 이 전쟁으로 이스라엘은 영토가 2만7천 평방미터로 늘어났다.

전쟁이 끝난지 50년이 되어간다. 하지만 갈릴리 물 분쟁으로 시작되었다는 이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시리아와의 골란 고원 반환 문제로 이 지역은 매우 곤란한 지역이 되었다. 40여 년 동안 이스라엘은 이 지역에 정착촌을 개발하였고 약 5만 명의 유대인들이 골란 고



원에서 농업과 목축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이다. 미국과 이스라엘과 시리아 사이에 골란 고원 철수와 배상에 관한 협상이 진행 중이지만 아직도 적대국가로서 총을 겨누고 있는 형편이다.

쿠네트라 마을이 보이는 전망대에 도착하여 우측으로 유엔 마을과 풍력발전소도 보고 철조망 건너 시리아 마을과 멀리 다마스커스를 바라본다. 좌측으로는 헬몬 산의 웅장한 모습이 보이는데 겨울에는 눈 덮여 있는 아름다운 설원을 감상할 수 있다. '과실이 많은 땅'이라는 골란의 이름답게 이곳에서는 소위 고랭지 과일을 많이 재배하고 있다.

성경에 나오는 골란 고원 그리고 사도 바울

이스라엘에서 소비되는 사과가 기후관계로 이곳에서 거의 생산되어진다. 상수리나무도 부지기수다. 과연 과실이 많은 땅이다. 고대에는 목축이 성행하였고(시22:12, 암4:1, 신32:14) 백향목이 우거진 지대였으며(사2:13, 겔27:6, 스11:2), 바산 왕 옥이 모세의 백성과의 싸움에서 대패하였다.(민21:32-35, 신3:1-7)

골란을 오를 때마다 바산의 암소들을 떠올리는데 암소들은 주로 남

쪽지대에서 목축이 되고 있다. 순례객들은 중앙 도로를 타고 서북쪽으로 방향이 잡아가기에 남쪽으로는 갈 수 있는 기회가 드물다.

골란 고원을 거의 빠져나갈 무렵에 사울이 주님을 만났던 대로를 지나게 된다.(행9:3) 시리아와의 도로가 끊어진 지점에서 잠깐 버스에서 내려 사울이 주님을 만나는 모습을 상상해 보면 좋겠다.

2017년 1월 올해는 지난 시간과 다르게 시리아의 내전으로 인한 아픔이 더욱 깊어지는 해이다. 골란 고원은 어쩌면 내전으로 인해 안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언젠가 다시 시리아와 이스라엘은 싸우게 될 것이다.

곤란한 땅이 축복과 화해의 땅으로 변하는 모습을 생각하며 이 땅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 본다. "주님! 사울이 바울이 되듯이 골란 고원이 평화 고원이 되게 하여 주소서."

골란 고원의 평화는 이스라엘의 평화이고 중동의 평화이고 세계의 평화이다. 우리 모두는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할 것이다. <계속>



서병길 교수
캘리포니아신학교
이스라엘선교회

2017 미주기독교대학박람회



IRUS
(International Reformed University & Seminary)

- ABHE 정회원
-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 (총회장 김선규 목사)
- WKPC(세계한인예수교장로회)인준 신학교
- I-20 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 ESL, 학사, 석사, 박사과정

125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4
Tel: (213)381-0081, FAX: (213)381-0010
www.irus.edu, office@irus.edu



미성대학교
America Evangelical University

- ABHE 정회원, ATS 준회원
- 기독교회(BA), 목회학석사(M.Div), 상담학석사, 선교학석사, ESL, TESOL
- 연방정부 승인 SEVIS I-20 지체 발행
- 안수 후 미주 및 한국에서 지역 가능
- 목회학박사 과정 신설
- 입학상담: 김시은 목사 712(213)407-4569

미래를 책임지는 미성대학교
총장 : 류종길 박사, 이사장 : 김광열 목사
1818 S. Western Ave. #409, Los Angeles, CA 90006
Tel (323)643-0301 Fax(323)643-0302
www.aeu.edu/info@aeu.edu ceumaster@gmail.com



충신 대학교 신학 대학원
CHONGSHIN UNIVERSITY THEOLOGICAL SEMINARY

캘리포니아주교육국(BPPE)인준 정식 학위 수여
수시입학(통신가능), 학사, 석사, 박사 과정 모집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에서 강도사 거쳐 목사 안수
모든 민족국제복음주의 총회에서 목사 안수
총장 : 이동규 박사 학장 : PASTOR YOUNG CHOI

978 S. Hoover St #201, LA, CA 90006
T.(213)386-0300



미주장로회신학대학교

해외한인장로회 총회 직영신학원
(한국 장로회 통합목사고시, 안수가능)
I-20발행 및 각종 장학제도

15605 Carmenta Rd., Santa Fe Springs, CA 90670
Tel, 562-926-1023, 4691 Fax, 562-926-1025
www.ptsa.edu



미주충신대학교
CHONG SHIN UNIVERSITY IN USA

개혁주의 신학의 전통을 바탕으로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
21세기 교회와 세계 선교 사명을 이끌어 갈
사명자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975 Wilshire Blvd.#3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487-1010 e-mail: info@chongshinusaeu
www.chongshinusaeu



복음대학교
Evangelical University

- TRACS 정회원 인준
- 특 전 : Sevis I-20 발행 /선교사 장학금 및 각종 장학제도
- 성경학 학사 (B.A. in Biblical Studies)
- 목회학 석사 (Master of Divinity)
- 종교학 석사 (Master of Art in Religion)
- 목회학 박사 (Doctor of Ministry)

2660 W. Woodland Dr. #200, Anaheim, CA 92801
Tel: (714)527-0691(0692) Fax: (714)527-0693
www.evangelia.edu info@evangelia.edu



솔로몬대학교

땅끝까지 제자를 삼아 복음을 전하자 (마태복음28:18-20)

총장: 백지영 박사 부총장: 브랜트 프라이스 박사
3921 Wilshire Blvd, #400, Los Angeles, CA 90010
Tel, 213-381-7755 Fax, 213-381-5055
http://solomonuniv.org/



월드미션대학교
World Mission University

ABHE, TRACS, ATS 정회원
미국 주류 신학교 학점 인정 및 편입학
온캠퍼스 & 온라인 프로그램
신학, 목회학, 기독교상담학 학사/석사/박사

500 Shatto Pl., Los Angeles, CA 90020
Tel: 213) 388-1000 Fax: 213) 385-2332
www.wmu.edu admissions@wmu.edu



캘리포니아 두란노 대학 신학대학원

목회학, 신학, 철학박사 California Tyrannus University
BPPE Ed, code 94874, Sc code 22426
CEO 학감 김호 박사

1008 S. Kingsley Dr., Los Angeles, CA 90006
Tel, 213-507-1933



코헨대학교&신학대학원

With the world!
To the world!

17002 S. Prairie Ave., Torrance, CA 90504
Tel, 424-257-8176 / Fax, 424-257-8136
www.cohenuniversity.ac



플러신학교 선교대학원 한국학부

135 N.Oakland Ave., Pasadena, CA 91182
Tel, 626-584-5574 http://korean.fuller.edu



그레이스 미션 대학교
Grace Mission University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대학

신학사(BA), 석사:기독교 교육학(MA CE),
선교학(MA ICS), 목회학(M.Div), 선교학 박사 (D.Miss)과정
연방정부학자금 보조, I-20, 온라인 강의,
한국어 및 영어 트랙, LA Teaching Site 운영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
Tel: (714)525-0088(대표), 515-5885(입학상담)
이메일: admissions@gm.edu www.gm.edu

온라인 쇼핑 비즈니스

주부, 여자 유학생 환영
주 8~10시간 사용하여 엑스트라 수입을 창출
연락처 T(818)590-6078

CHRISTIAN BUSINESS

www.chdaily.com

광고문의 213.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중고차 황제 김기형

Family 자동차 새차 맞춤 리스 중고차 매매

\$ 중고차 최고가 매입 \$ “기본 \$700 더 드립니다.”

213.453.5900 714.743.1000

933 S.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6 familyauto.us



한국의 사랑

한의원 Zo'e 조애

Tel: (213) 718-8275

이제마 사상 체질 맥 30년 전문
체질맥, 장부맥, 병맥, 설진

2120 W. 8th St, #208, LA, CA 90057 (8th & Lake St.) (일수토 예약 필수)

2017 CD PRINTING 문의 323.265.0244 junimmedia@gmail.com www.junimmedia.com

교회성경, 부흥회 시디앨범, 신학교 강의 오디오북
소량, 대량 모두 제작이 가능합니다.

신년맞이 패키지
(8인치CD + CD봉투 + 라벨 포함입니다.)
1,000장 \$350
3,000장 \$950 (디자인 Free)

다양한 사이즈의 CD 봉투
A형 스탠드 배너 \$160 (디자인 포함)
사막의 동산 교회
Stand X-Banner \$65
Retractable Banner \$140

시티보험 자회사 CA Lic. #0156071
실버시티보험

올해 65세
되십니까?

메디케어 신규 가입 & 변경 기간 10월 15일 ~ 12월 7일

■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Part C) ■ 메디케어/메디칼 (변경기간 상관없음)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 메디케어 등 무료 상담해 드립니다.

문의 상담 213-321-0302 Connie Kim (김경미)

손바느질 양복의 명가
골드핑거

T. 213.386.5858

직접재단/직접재봉/남녀맞춤/명품 옷수선

Master Tailor 김병호

975 S. Vermont Ave, #102, Los Angeles, CA 90006

헤어컷 특강

미용을 배워 선교하는데 사용하실 분들을 위해 특강을 엽니다.

■ 대상: 전도와 선교를 위해 사용하실 분 (현재 프로 미용인도 OK)
■ 회비: 월 \$10
■ 강사경력: 전 국가대표 선수권자
■ 문의: 213.392.2323

왕만두 (10개 \$10)
팔짚빵
부추교자 (50개 \$20)
김치교자

무료배달 (\$40이상 주문시)

손으로 정성껏 만듭니다.
인하손만두 626.731.7864

문서선교에 앞장서는 기독교일보

광고 및 후원 문의

Tel: (213) 739-0403
E-mail : chdailya@gmail.com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SAMSUNG SHIPPING

www.easy2424.com

한국식 포장이사 가능

귀국·시내·타주이사·차량운송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무료 전화 (877) 580-2424
(310) 538-3333

18118 S. Broadway St #B., Gardena, CA 90248

리프팅 라인·지방분해

최신장비 도입
*리프팅 라인 4회 \$999
*부분지방 분해 5라인 8회 \$999

• 초스피드 다이어트
1달에 7파운드~25파운드 감량

• 각종 피부병과 아토피
• 습진 화농성 여드름

✓ 손가락 {류마티스 관절통증
✓ 발가락 {퇴행성 관절통증
✓ 마디관절 {손목, 발목 질환
*지속한 코골이 증상

• 치질(항문하혈, 통증) • 우울증
• 독소제거, 혈관 청소 • 관절염, 다리 쥐 오름
• 갑상선, 당뇨병, 정력제 • 원형탈모, 지독한 비듬
• 불임증 (자궁축, 하혈) • 만성두통, 요통
• TMJ 턱관절 장애 * 쉽게 담배를 끊을 수 있는 약 취급합니다.

치아미백 3대째 가업으로 이어온 영선한의원
잇몸 시큰거림 풍치예방 3달분 \$60

배 빠는 속변약!
먹으면서 체중을 줄이고,
몸 전체에 부종이 빠지는 약

한달 \$50

영선한의원 Young Sun Acupuncture & Herbs Clinic (213) 380-7800 각종보험취급 (교통사고 전문 병원)

LA MEDICAL CENTER 3663 W 6th St, #308
Los Angeles CA 90020 (6가와 아도모어)
영업시간 : 월~금: 10시~5시 / 토 10시~2시

Wedding Catering with LA Catering

웨딩캐더링, 어디서 할까
늘 고민이시죠?

캐더링의 맛과 멋을 동시에 해결해 드리는
LA 캐더링을 만나세요. 선택의 폭이 다양해 집니다.

30여년간 늘 발전해가는 맛과 서비스로 캐더링업계에 최고임을 자랑하는
LA 캐더링이 맛을 더한 특급 뷔페식 캐더링 서비스로 결혼을 준비중인
예비 신랑 신부의 큰 고민을 말끔히 해결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전화하셔서 평생 기억에 남을 특급 캐더링 서비스를 예약하세요.

결혼식 피로연 캐더링 전문업체

www.lacatering.com LA Catering

편리한 예약 상담 / 신속한 견적 서비스
323.730.8585 • 714.925.9801

● 이장렬 칼럼

회복의 복음 (요한복음 21:1-6)

요한복음 21장은 “그 후에”로 시작한다. 헬라어 메타 타우타는 문자적으로는 “그 일들 후에”라는 뜻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일들”은 어떤 일들을 가리키는가? 필시 바로 앞에 나오는 사건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20장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사건들을 지칭한다. 자신들도 스승처럼 십자가 처형을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나타나셨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눈으로 생생히 목도했다는 동료들의 증언을 목살한 도마를 위해 다시 찾아오셨다. 그런 감격스럽고 충격적인 일들 후에 부활의 주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사건이 요한복음 21장에 담겨 있다.

저자 요한의 증언에 따르면 예수님은 부활 후 딱 한 번만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다. 적어도 세 번 나타나셨다(요21:1 및 21:14 참조). 부활 후에도 거듭 제자들에게로 향하시는 주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놀라운 은혜를 엿보게 된다. 한편, 방문마다 고유한 목적이 있을 또한 보게 된다. 첫 번째 방문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리기 위한 방문이었다면, 두 번째 방문은 주님의 부활 소식을 강력히 거부하는 제자 도마를 위한 방문이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세 번째 방문은 15절 이하에서 볼 수 있듯이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방문이다. 주님께서 일하실 때는 이처럼 분명한 목적이 있다. 주님께서는 결코 당신의 방문을 낭비하시지 않으신다.(물론 우리가 주님이 일하시는 목적을 늘 선명히 본다는 것은 아니지만.....)

요한복음 21장의 기사는 일곱 명의 제자들을 소개한다(2절). 시몬 베드로를 필두로 요한복음 20장에서 부각되었던 도마 그리고 요한복음 1장에서 주목받았던 나다나엘,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즉, 야고보와 요한)과 다른 제자 둘이 언급된다. 공관복음에서 핵심 제자군이라면 역시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렇게 3인방이다. 변화산에 주님과 함께 올라갔던 것도 이들 아닌가?(막 9:2 이하 및 병행구절) 그런데 요한은 “세베대의 아들들”을 언급하기에 앞서 도마와 나다나엘을 언급한다. 그리고 보면 요한복음에는 누가 더 핵심적인 제자인가에는 저자의 독특한 안목이 담겨 있는 듯하다. 어찌 보면 다른 동료 제자들을 먼저

언급하는 겸양의 표현일 수 있다. 그러나 제자 중 누구의 이름이 먼저 혹은 자주 언급되는가보다 누구의 제자인가가 훨씬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둘”이란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요21:2)”

개혁개정에 요한복음 21장 2절에 나오는 “또 다른 제자 둘”(저자 요한은 이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이란 표현의 헬라어 원문을 직역하면 “그의 다른 제자 둘”이다. 2절에서 베드로로 시작해서 5명의 이름이 언급되었지만, 여기 “그의 다른 제자 둘”은 그 중 누구의 제자도 아니다. 이 두 명은 바로 예수의 제자다. 2절에 나오는 “그의”라는 대명사는 바로 앞에 등장하는 사람 중 그 누구도 지칭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 대명사는 앞서 1절에 언급되었던 예수님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대명사가 어느 단어를 지칭하는지 확인할 때, 근접한 단어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 일반적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바로 앞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들, 그 앞에 나오는 나다나엘, 도마, 베드로 중 누구도 저자가 이름을 밝히지 않은 이 두 사람의 스승이 아니다. 1절에 언급된 예수님이 이들의 스승이시다.

요한복음 21장 2절에서 대명사 (“그의”)가 누구를 가리키는지에 대한 위와 같은 관찰은 다시금 요한복음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상기시켜 준다. 학자들은 요한복음 21장을 보통 에필로그로 분류한다. 요한복음 내러티브의 본체는 20장 마지막에 나오는 도마의 클라이맥스적 신앙고백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한 선언으로 마무리되고, 21장은 일종의 후기로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직접적인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한 학자들의 견해가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 그러나 위에서와 같이 2절에 등장하는 “그의”라는 대명사에 주목해 보면, 요한복음 1-20장에서와 마찬가지로 21장에서도 예수님이 여전히 이야기의 주인공으로 남아 있음이 입증된다. 요한의 이야기에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우리의 이야기에서는 과연 누가 주인공인가?

머릿것으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를 대변인 삼고, 스승을 보호하고자 “옹맹하게” 칼을 휘둘러 말



이 장 렬 교수
미드웨스턴침례신대학원
신약학

고의 귀를 베었던 시몬 베드로는 여전히 제자들 무리 가운데서 “리더십”을 발휘한다(요21:3; 13:24 및 18:10 참조). 베드로가 고기 잡으러 간다고 하자 동료 제자들이 바로 따라나선다.

그런데 잠깐! 지금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고? 부활하신 주님을 두 번 대면한 후 제자들이 보여주는 반응이라기에는 다소 어색하고 부적절해 보인다. 시몬 베드로에게 그리고 동료 제자들에게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가 남아 있는 듯한 암시를 받는다(요21:15-17참조). 고기잡이에 나선 제자들의 모습이 그들의 영적 둔감함을 암시해 주는지도 모르겠다(요21:4참조).

어찌 되었든 베드로의 “리더십”은 이날 밤 일절 효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낮보다 고기가 잘 잡힌다는 밤시간을 골라 철야 작업을 했다. 적어도 세 명의 전문 어부들(베드로와 세베대의 아들들)을 포함한 일곱 명의 제자들이 밤새 동원되었다. 하지만 헛수고다. 완전 허탕이다. 디베라 호수의 모든 물고기는 작은놈 하나 예외 없이 이들의 그물을 철저하게 그리고 처절하게 피해 간다(요21:6 참조). 크레이크 키너(Craig Keener)가 그의 두 권짜리 요한복음 주석에서 말한 대로, 저자 요한은 이 부분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그러나 요한복음은 바로 여기서 끝나지는 않는다. 예수님은 허무함과 탈진, 노동 무가치를 경험한 일곱 제자를 향해 다시 한번 은혜로 다가오신다(요21:4 이하 참조). 바닥을 치는 인생 경험일 때로는 축복의 질은 그림자다. 만일 그런 경험으로 인해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된다면 말이다. 만일 그런 체험으로 인해 우리 삶에 주님의 개입이 필요함을 실제로 인정하게 된다면 말이다. 바로 이날 밤이 그랬다.

엄청난 포획(요21:6)이 기적인 것

처럼 사실 어쩌면 밤새 물고기가 단 한 마리로 걸려들지 않은 것도 기적인지도 모른다. 이는 적어도 주님의 베푸시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에 앞서 제자들의 심령을 일구시는 신적 간섭의 한 방식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시다. 제자들의 죄를 위해 그리고 세상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도 변함 없는 은혜로 제자들에게 계속 다가오신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은 부활 후에도 변함없이 계속된다(요13:1 참조).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영광의 주시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미 제자들에게 와 계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미 디베라 호숫가 제자들 곁에 함께 계셨다. 이어지는 요한복음 21장의 내용을 보면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당도해서 제자들의 아침 식사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요21:9). 그러나 허무함과 탈진에 짓눌린 제자들은 주님께서 그들 곁에 와 계심을 전혀 깨닫지 못했다. 제자들에게 부활 후 이미 그들을 두 번 찾아오신 주님이 그들을 다시 만나러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감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 누군가 호숫가에 서 있는 것을 보긴 했지만 그게 예수님이라고는 생각치 않았다(요21:4). 그들은 그렇게 영적으로 둔감해져 있었다. 마치 우리처럼 말이다.

저자 요한은 주님께서 “애들이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요 21:5)”고 물으셨다고 기록한다. 이 질문은 헬라어로는 파이디아 메이 티 프로스 화기온 에케테이다. 이 특정한 질문 형태는 질문자가 상대방이 어떻게 답변을 할지 이미 알면서 물어보는 경우에 사용된다. 특별히 “아니오”라는 답변이 나올 것을 미리 알고 물을 때 사용된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애들이아, 너희 물고기를 좀 잡았는지 아닌지 내가 확실히 잘 모르겠는데, 밤새 상황이 어떻게 되니?”라고 물으신 것이 아니라, “너희 밤새 도록 잡은 물고기 한 마리로 없지? 맞지?”라고 물으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물고기를 좀 잡았는지 아닌지를 물아서 물으신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밤새 허탕만 쳤음을 정확히 알고 계셨다. 그들의 허무함, 노동 무가치 경험, 바닥을 치는 체험을 속속들이 헤아리고 계셨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질문하신 의도는 결코 정보수집에 있지 않다. 도리어 제자들이 자신들의 상

황을 직면하고 주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시는데 그 목적이 있다(요15:5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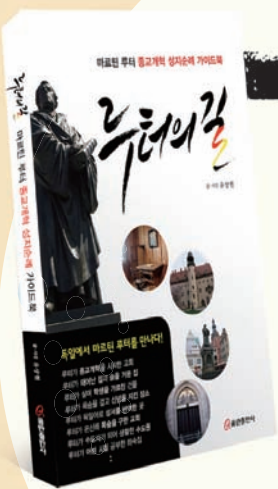
아무것도 잡은 게 없다는 처절함이 담긴 제자들의 답변을 들으신 후, 주님은 한 치의 주저함도 없이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명령하신다. 그렇게 하면 물고기를 잡을 것이라고 단언하신다(요21:6). 당시에는 보통 키잡이 노가 배의 오른편에 있는 이유로 어부들이 배 왼편으로 그물을 던졌다고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은 전문 어부의 상식과 전통에 어긋나는 명령을 내린 것이다. 어쨌든 제자들은 주님 말씀대로 행했다. 그랬더니 밤새 제자들을 피해 도망 다니던 물고기들이 총집합하여 단번에 그물에 걸려든다. 한 마리만 걸려들어도 밤새 허탕 친 것과 얼마간 대조를 이루겠지만, 겨우 그 정도가 아니다.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물고기가 한숨에 걸려든다. 153마리의 큰 물고기들이 단번에 포획되는 사건이 일어났다(요21:11참조).

도대체 제자들이 무슨 일은 한 것인가? 그들이 한 일이라곤 아무것도 없다. 그저 은혜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신 주님 말씀대로 행한 것 외에는 말이다. 주님 말씀 대로 했더니 기적적 포획이 일어났다. 디베라 호수의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순종이었다.

디베라 호수에서 일어난 기적적 포획의 사건은 주님 없이 스스로 해 보려는 인생과 주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신뢰하고 순종하는 인생의 극명한 차이를 절실히 보여준다. 그때나 지금이나 제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 말씀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신뢰와 순종뿐이다. 우리가 진정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생각과 경험보다 존귀하게 여기게 된다면,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산다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도 다가오는 세대의 풍성한 생명을 미리 경험할 것이다. 잘 알려진 찬송가 가사대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다.

은혜의 주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을 세 번 째로 방문하셨다. 밤새 허탕만 쳤던 제자들이 이보다 더 좋은 순 없을 것 같은 포획의 기적을 경험했다. 하지만 요한복음은 여기서 종결되지 않는다. 더 복되고 은혜로운 사건들이 제자들을 그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성지순례 안내서



루터의 길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순례 가이드북

루터는 '오직 성서'를 부르짖었다. 이것은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외침이기도 하다. 루터가 걸었던 그 특별한 길을 뒤따르는 당신에게 이 책은 길의 방향을 알려주고 길에 새겨진 발자국을 설명해주는 '안내자'가 되어줄 것이다. 그리고 당신은 그 특별한 길에 남은 루터의 흔적을 직접 보고 듣고 느끼는 순례자가 될 것이다.

유성현 지음 / 240면 / 15,000원



양화진 순례길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던 이방인 순교자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며 여수 애양원에서 서울 양화진까지 27일 동안 680km를 걸었다. 혼자서 걸어도 그 길은 삶을 되돌아보는 깨우침의 시간이었고, 주님과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순간이었다. 기행문이자 선교사들의 사역 기록이기도 한 이 책은 스페인의 산티아고 가는 길과도 같은 한국의 순례길 여정을 담았다.

담양 지음 / 328면 / 20,000원



주님과 함께 걷는 <이스라엘 성지 순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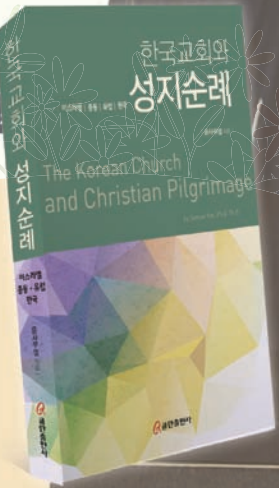
필자는 오글라호마 대학 교수로서 미국 연방 항소법원 판사인 딸 루시고 판사와 함께 이스라엘 성지순례 자료와 사진을 정리하였고 단순한 여행기가 아닌 기독교 성지 연구와 생생한 역사가 담긴 현장을 컬러 사진으로 담고 있기에 성지 순례를 준비하는 이들에게 큰 도움이 된다.

탁은숙 지음 / 328면 / 20,000원

한국교회와 성지순례

성지순례는 학문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영적 재충전, 주님과과의 사랑 회복, 치유의 은혜의 기회가 된다. 성경 말씀이 기록된 장소를 찾아가서 당시의 문화와 역사를 공부하고 그곳의 기후와 분위기를 직접 느끼면 성경을 이해하는 폭이 훨씬 넓어진다. 이스라엘, 중동, 유럽, 한국을 다니며 조사 연구한 것으로 성지순례에 대한 풍부한 자료가 실려 있다.

윤사무엘 지음 / 496면 / 19,000원



기/독/일/보와 함께하는

복새동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잠언 8:10)

책으로 통하는 새로운 세상



신간 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이사무엘 | 브니엘 | 240쪽

아브람과 롯의 선택을 통해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된다. 아브람은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했다. 그렇기에 거룩한 분별력은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한다. 하지만 분별력 없는 경솔한 선택은 우리 인생을 황폐하게 만든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삶 속에 아름답게 스며들게 하는 최적의 방법이 바로 분별력이다.



하나님 마음 듣기

이희영 | 두란노 | 208쪽

47년 간 말씀을 '사랑의 만나'로 묵상하며 살았던 저자가 하나님 마음 듣는 방법을 돕고자 쓴 '영성 큐티' 칼럼집.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뼈대 삼아, 성경 인물들의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시는지 살피고, 하나님 마음에 주파수를 맞추는 방법을 들려준다. 하나님 음성 듣기란 곧 하나님 마음 듣기이므로, 말씀을 알아듣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동행

라니아 번즈 | 박광영 역 | 개혁주의신학사 | 390쪽

'하나님의 임재'라는 성경신학적 주제로 관련된 성경 본문을 분석한다. 창조에서부터 인간의 죄와 타락에도 꺾이지 않은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거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임재 속에 절정에 이른 완벽한 모습까지 세밀하고 감동적으로 그렸다. 역사 속에 임하신 다양한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을 밝혀주면서 하나님과의 동행이 어떤 모습으로 구체화되었는지 알려준다.



불온한 독서

아거 | 새물결플러스 | 292쪽

책에서 말하는 '불온한 독서'란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글을 쓴 불복종자들의 생각과 사상을, 그들의 글을 통해 배우는 것이다. 독서와 글쓰기에 수반되는 사유와 성찰은 인간의 행동을 변화시키고, 변혁의 시발점이 된다. 진보를 위한 저항만이 스스로의 인간됨을 보장하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한 발걸음으로 이끌 것이다. 이런 고민과 열망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책이다.



REVIEW

“교회, 신앙 공동체 벗어나 ‘정치의 장’ 돼선 안돼”

한양훈 목사(서울우리교회)의 신간 《은혜로운 신비로운》이 발간됐다. 이 책은 지난 2016년 극동방송에서 '희망칼럼'으로 방송했던 내용들을 묶은 것으로, 짧은 글들이지만 성도들과 나누고 싶어 정식으로 펴내게 됐다고 한다.

총 4부인 이 책은 '나를 돌아보기', '따뜻한 날이 오기를', '성숙의 계절', '눈보라는 사라지고' 등 날짜와 계절순으로 구성돼 있다.

삼일절을 기념해 쓴 '열심당'이라는 글에는 최근 기독교인들의 고민에 대한 하나의 모범답안이 나와 있다. 그는 여기서 "기독교는 평화를 귀하게 여기지만, 우리 신앙에 공격을 받을 때 무작정 당하기만 해야 하

는 것은 아니다"며 "만일 민주 정치에 대해, 신앙에 대해 공격을 받는다면 기독교는 언제든지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독재 정권이 생겨날 경우 그리고 우리 신앙이나 사회에 결정적으로 피해를 주는 법이 제정될 경우 기독교는 개인적으로든 교회적으로든 저항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만일 불의를 보고 침묵한다면 진리를 따르는 모습이 아닐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한 가지 조심스러운 것이 있다.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공동체라는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적 관심에 휩쓸린 '정치의 장'이 될지 모른다는 것"이라며 "진리



은혜로운 신비로운
한양훈 | 有하 | 224쪽

를 말하고 정의를 논하지만 실제로는 자기가 지지하는 정당의 대변인 노릇을 하거나 당원 같은 행동을 하고, 자기와 반대되는 당을 비판하고

심하면 악담을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양훈 목사는 "성도가 모인 교회에서, 심하면 설교 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나 반복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과 거리가 먼 행동"이라며 "가능한 한 성도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 토론할 수 있지만,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연행은 삼가는 것이 좋다. 교회 공동체는 특정 정당의 당원 모임도,당을 선전하는 선전장도 아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았기에 로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무력으로 대항하기도 했다. 여러 경우 성전 뜰에

수천 명이 결집해 대항,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거룩한 성전에서 로마와 싸우다 피를 흘리고 그 피가 거룩한 제단에 묻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저자는 "양과 소의 피만 바쳐야 하는 제단에 사람의 피가 바쳐져 하나님이 금하신 인신 제사 형태가 되고 만 것"이라며 "이는 제사가 모독된 사건으로, 성전이 정치의 장과 투쟁의 장소가 됐을 때 나타난 좋지 않은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집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진리를 가르치는 본질에서 벗어나면 이처럼 예상치 못한 참담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이대웅 기자

삼성이 하면 다릅니다.

저희 "삼성통운"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고객 사랑을 실천하겠습니다.
한번 클릭으로 이사 모든 것을 해결 www.samsungmoving.com

이사의 명가(名家) 가주 삼성 통운(주)

귀국이사

- 집안 내에서 손님 입회하에 한국식 포장 서비스
- 포장 재료 무료 제공
- 한국에서 완벽한 가구 set up 과 쓰레기 수거

시내이사

- 한국식 포장 이사 전문 (한국인)
- 피아노, 돌침대 취급 전문
- 포장 box 대여 및 판매
- 사무실, 공장 이사
- 창고 보관 가능

자동차운송

- 미 전지역 모든 승용차 운송 (7~10일 소요)
- 한국 및 동남아 자동차 운송 전문
- 초 저가 차량 운송

타주이사

- 무료 창고 보관 1개월 서비스
- 미국 내 전지역 정기 운행
- 샌프란 시스코, 베가스, 피닉스 당일 출발
- 씨애틀, 달라스,아틀란타, 뉴저지 월2~3회 정기 운행

해외이사

- 하와이, 괌, 알라스카
- 중국, 일본, 남미
- 캐나다(밴쿠버, 토론토)
- 전 세계 선교사 이사 화물 전문

☎ 1-877-580-2424 ☎ (310) 538-3333 LA (323) 582-2424 OC (714) 777-7799

SAMSUNG SHIPPING, INC. samsungmoving@gmail.com

• 주정부 허가: MTR-190586 • US - DOT: 1847208 ICC - MC: 669029 • Fully Insured & Bonded

“교회를 보험회사로 변질시키는 각종 전도 프로그램...”

[크리스찬북뉴스 추천도서] 복음전도는 여전히 이루어진다

전도에 대해 요즘 시대만큼 알려지기 반응을 보이는 시대가 없는 것 같다. 교회에 소속돼 있는 사람도 전도라는 말만 들으면 스트레스를 받아 멀리하고 싶어지고, 전도 대상자들 또한 누군가 나에게 접근하는 것을 알게 되면 자동적으로 거부감이 생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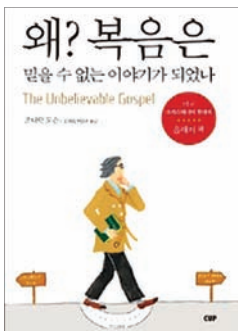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사람은 존재적으로 변하게 되어 있고, 그의 삶의 목표와 방향도 수정되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된다. 그리고 그 열어붙은 마음과 인생을 녹이는 사랑의 결과로 그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충만한 복음과 그분께서 베푸셨던 용서와 회복을 전하고 싶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현대교회는 전도라는 것을 오해하고 왜곡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의심 없는 순수해 보이는 포장을 했지만, 그 속은 의심 가득하고 불순한 동기가 많았다. 또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능력이며 성령님이 역사하심으로 반드시 사람이 변한다는 가르침은 성경적이지만, 그 모델과 지향점이 비율처럼 한 순간에 사람이 회심하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설명했다.

이런 전도에 대한 오해와 왜곡은 전도의 방법을 변질시켰고 교회의 이미지를 훼손했다. 어둠과 고통 가득한 세상에서 빛과 기쁨의 공동체 역할을 하는 것이 교회인데, 세상과 사회에 대한 이해 없이 의무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입장 때문에 무례한 교회로 드러나게 되었다. 또한 무한경쟁 시대 속에서 교회 또한 힘의 논리와 적자생존의 노예가 되어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전도를 수행하기도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는 전도를 통해 일어나는 회심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에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으로 이해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방법들이 공격적이고 목적 지향적이며 사람에 대한 깊은 이해 없이 무지했다. 교회는 전도 대상자를 기다려 주는 시간적 배려와 세상을 이해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잃어버렸다.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대상자의 고민과 삶에 대해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다가가야 하는데, 복음을 전해야만 한다는 강한 당위성이 상대방을 수단으로 생각하게 만들었다. 주님의 사랑을 전해야 한다는 마음은 알지만, 그 동기가 이상해졌다.

이 책은 제목처럼 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는지를 잘 다루고 있다. 특



왜? 복음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되었나
조나단 도슨 | CUP | 276쪽

별히 저자는 자신이 직접 목회하며 접했던 다양한 사례를 보여주며, 복음이 우리 시대에 왜 이렇게 무가치하게 되었는지 그 안타까운 현실을 분석한다. 그러나 그 슬픔에 무너지지 않고 어떻게 복음의 가치를 회복할 수 있고 어떻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들을 제시하고 우리에게 희망을 준다.

책은 총 3부로 구성돼 있는데, 1부에서는 전도가 왜 어려워졌는지 그 이유를 분석한다. 여기서 저자는 대상자와 인격적인 관계도 맺지 않고 그 영혼의 문제와 비전과 삶에 대해 관심도 없이, 대상자를 목표물로만 여기는 비인격적인 방법이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필자 또한 많이 공감했는데, 교회가 대상자를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게 목적이 되어버린 행위가 교회를 보험회사같이 변질시키고 복음의 순수한 동기와 능력을 차단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었다고 한다.

교회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한 사람을 데리고 오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먼저 대상자를 사랑하는 마음과 그의 삶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사랑이다. 그런데 어떻게든 상대방을 변화시켜야 된다는 압박감과 상대방도 불쾌하게 여길 정도로 이미 죄인 취급해 버리는 무례한 태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그렇다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만 받아주고 다가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니다. 다만 교회가 전도를 해야 한다는 의무감보다, 주님의 마음으로 한 영혼과 인생에 교회가 정말 관심이 많고 그가 회복되고 행복해지기를 원한다는 진심이 드러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여기서 자신의 일터와 삶을 전도의 발판으로 삼지 말라고 한다. 우리는 이미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라고 가르쳤는데, 저자는 우리의 일상에 충실하여 타인을 도우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

라고 한다. 또한 저자는 전도 프로그램처럼 단번에 복음을 제시하여 결과를 얻으려 하기보다 예수님의 방법처럼 여러 질문을 던지며 그의 관심사에 마음을 함께 하라고 한다. 그리하여 충분한 시간적 배려를 하여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를 쌓으라 권면한다.

2부에서는 우리가 전해야 하는 복음의 성격이 무엇인지 다룬다. 저자는 복음을 역사적(교리적), 개인적(인격적), 우주적(사회적) 차원으로 설명한다.

무엇보다 여기서 저자는 성경이 복음을 다양하게 전하는 방식을 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복음의 메타포로 칭의, 속량, 양자됨, 새 창조, 그리스도와와의 연합 등 5가지 주제로 복음을 설명한다. 이 다섯 가지는 서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 각각이 전하는 고유한 복음이 있다. 이렇듯 저자는 복잡한 세상에서도 복음이 충분히 세상을 압도하여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고 상대방을 이해하여 의미 있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

3부에서는 이 책에서 가장 실제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복음의 5가지 메타포를 통해 각 사람에 맞게 복음이 어떻게 믿을만한 이야기가 되는지 증명한다. 자신을 증명하려고 분투하는 사람에게, 실패하고 상처받고 망가진 인생에게, 진밀함을 원하는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편협하다고 비판하는 이들에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매는 이에게, 이렇게 저자는 복음이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자신이 실제 만났던 사람들과의 대화와 복음전도를 통해 보여준다.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복음전도를 생각하면 인상부터 써지고 불편하게 다가온다. 전하는 자는 교회에서 주는 압박감이나 큰 당위성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상황에 대한 이해보다,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부족하다고 큰 죄처럼 말하니 짜증이 생긴다.

그러나 저자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복음전도를 줄여야 한다거나 해서 안 된다고 아니라, 오히려 복음전도를 회복해야 된다고 설득한다. 복음이 좋은 소식이 되지 못하는 이유를 알았으니, 그 문제를 해결하고 복음의 풍성함과 다면성을 가지고 다양하게 인격적인 접근을 시도하기를 권면한다. 복음의 증인이 되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독을 추천한다.

방영민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편집위원

누구나 알지만 설명은 힘든 ‘속죄’

속죄에 대한 개념 정리하는 책



속죄
가브리엘 플루리 편집
개혁주의신학사 | 238쪽

자기가 아는 것을 설명하는 것도 쉬운 일만은 아니다. 그러나 자기가 알지 못하는 것은 더 설명하기 힘들다.

‘속죄(贖罪, atonement)’는 사람이 스스로 체득하거나 습득할 수 있는 지식이 아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근본 지식이다. 기독교를 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속죄’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그런데 이 관문을 설명하기 어렵다. 2000년이 지나도록 명쾌하게 설명한 글은 없다.

‘속죄’라는 단어에는 ‘atonement’ 외에 ‘expiation’도 있다. ‘expiation’은 제물(祭物)에 관련된 것으로 ‘화를 푸는’ 의미이고, atonement는 대속(代贖, ransom)에 관련된 것으로 ‘값을 지불함’으로 보인다. 이 책 ‘속죄’에서는 ‘propitiation’과 ‘expiation’이 긴밀한 관계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칭의의 이해(김세윤의 유보적 칭의)’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칭의의 이해에서 다양한 논의가 나오는 이유도 ‘속죄’의 개념, 효과 등에 대해서로 이해가 다르기 때문이다.

필자는 ‘속죄, 전가 교리, 칭의 교리’를 한 묶음으로 이해해야 구원 매커니즘을 확실하게 규명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속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이 책 ‘속죄’는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7명의 저자가 8개의 주제로 제시한 것을 플루리가 편집해서 제시했다. 7명의 저자는 제임스 패커, 존 위트,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 존

거스너, 스프라울, 싱클레어 퍼거슨, 벡 등 복음주의 계열과 개혁신학 계열이 주축이 된 매우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이들이다. 속죄에 대해 17세기 튜레틴의 ‘그리스도의 속죄’부터 시작해 21세기 사역자들의 ‘속죄’를 비교하는 독서를 제안해 본다.

‘속죄’에서는 중요한 용어들이 등장하는데, 용어를 통일된 개념으로 제시하지 않는다. ‘속죄’에서는 통일되지 않는 단어를 한글로 제시하고, 영문 표기를 하지 않는 아쉬운 점이 있다. 그러나 그 핵심 단어와 개념을 추출해 개념화를 진행한다면 좋은 신학 훈련이 될 것이다. ‘속죄’에서는 핵심 단어가 모두 제시돼 있다.

첫째, 만족설(Satisfaction Theology, 안셀름)과 감화설(Moral influence theology, 아벨라드)이다. satisfaction은 통상 ‘만족’이라고 번역하는데, 명료한 번역은 아니다. ‘만족(satisfaction)’에 대한 연구는 문병호 박사(홍신대)가 상당히 진행했고, ‘무름’으로 제시하고 있다(참고. 문병호, <그리스도의 무름>, 신학지남 289호, 2006년). 아벨라드에서 ‘속죄의 필연성’에 대한 이해는 자유주의까지 연결된다. ‘속죄’와 ‘심판’은 한 짝으로 연결된다.

둘째, propitiation이다. 유화(宥和)로 번역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속죄의 희생’으로 번역했고, 화목제물 등으로 번역한다. 셋째, 대표 대리적(representative, substitute) 속죄 개념이다. 넷째, 화해(reconciliation) 개념이다. 위트는 화해를 관계회복, 태도의 변화로 제시했다.

‘속죄’ 저자들은 탁월한 사역자들이지만 서로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다. 그러나 중세 시대부터 현재까지 모든 단어는 제시돼 있다. 그러한 ‘속죄’에 대해 교회 이해를 조망하는 것은 가능하다. ‘속죄’는 ‘속죄 방식’을 ‘그리스도의 피의 속죄 제사’를 근거로 제시하려고 노력한다고 이해할 수 있다. 고경태 목사
크리스찬북뉴스 운영위원

북한간부의 하나님을 만나기까지와 순교한 스토리

-우리들의 회개와 동족들의 마음을 얻어 통일의 꿈을 줄 두 권의 책-



●구입: 미주두란노와 기도운동종교회 (\$20/권당)
●문의: (425) 775-7477, www.gideonbrothers.org
gbmwusa@gideonbrothers.org (온라인주문가능)
●주소: GBMW (체코모터링과 우편수취명 동일)
16825-48th Ave, W, #345 Lynnwood, WA 98037



미주 크리스천 신학대학교(원)

봄학기 학생모집

Christian Theological College & Seminary in America

신학대학교
• B.A. 신학과

개강
3월 23일

신학대학원

- M.Div 교역학 석사과정
- M.A. 목회학 석사과정
- Th.M. 신학 석사과정
- D.Min. 목회학 박사과정
- Th.D. 신학 박사과정

1508 S. Vermont Ave. Los Angeles, CA 90006
Tel. (213)273-6031 | (213)235-6889

예루살렘 성가대 창단

찬양 대원 모집

남가주 기독교 교회협의회 주관으로 교회 음악 발전을 도모하고 인재 양성을 위해 성가단을 창단하고자 하며 보다 능률적인 연주활동을 통해 하나님의 인간 창조 목적을 찬양으로 승화시켜 올바른 찬양의 제물로 하나님의 높은 뜻을 만민에게 전하고자 아래와 같이 성가단을 모집합니다.

▶모집인원: 00명
▶단원의 자격
- 교회에 출석하는 성도
- 성가단에 봉사하며 독보력이 있고 미성을 가진 자
▶연습장소
- LA 지역: 나성 소망교회 1000 Venice Blvd. Los Angeles, CA 90015
- OC 지역: 추후 지정
▶연습시간
- LA지역: 매주 목요일 오후 7:00~9:30
- OC지역: 매주 월요일 오후 7:00~9:30
▶성가단 지휘자 양력: 서문목 목사(교회 음악 합창 전공 음악 박사)
- 전국 합창 경연 대회 최우수 2년 연속 수상 (한국)
- 전국 우수 지휘자 최우수상 2년 연속 수상 (중국)
- 미국 시카고 America Music Conservatory에서 우수 합창 지도자로 선정
- LA 레위 남성 성가단 창단 지휘자 (전)
- Joyful Mission Chorus, 상임 지휘자(현)
▶문의전화
213.272.6031 | 성가단 창단 준비 위원장 엘리자 김 목사 (교회 수석부회장)
310.913.1661 | 성가단 상임지휘자 서문목 목사
310.691.4426 | 교회 총무 홍성관 목사



Attendees at the February event in Masaya pray for one another. This year, some 22,000 are estimated to have attended the two-day event. More than 450 received Jesus as Lord, and more than 70 were baptized.

Korean Churches Work Together to Share the Gospel to Thousands in Nicaragua

Tens of thousands attend, more than 450 receive Christ during two-day event

Churches in the New York presbytery of the Korean Presbyterian Church Abroad (KPCA) have once again hosted a revival event in Masaya, Nicaragua for the first time in three years, from February 25 to 26. Some 22,000 Masaya area residents attended the conference over the two days.

The churches had organized the revival events seven consecutive years from 2008 to 2014, leading countless people to Christ. This year's event, like the previous ones, featured pastoral seminars, teaching seminars, medical and dental screenings, nail art, personal evangelism, eye exams,

intercessory prayer, and hair services, among other activities.

A mission team comprising of 70 members of churches in various regions such as New York, Chicago, and South Korea, ministered to the people in Masaya with one heart and as one team. The team included church members from Yale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New York, Sansung Church in Busan, and Korean Presbyterian Church of Westchester, among other churches.

Attendees traveled from not only the nine cities located in Masaya, but also outer cities, and 227 buses were mobilized to bring

attendees to the event.

The first day saw some 12,000 in attendance, while the second day drew about 10,000. A total of 454 individuals received Jesus as their Lord during the event, and 73 people were baptized.

"I want to express my gratitude from the deepest place of my heart to those who have served through prayer, offering, and physical presence," said missionary Dong-Hong Lee. "The phrase that I can still hear ringing in my ear, 'Masaya para Cristo,' will be my rallying cry for missions and is the path that I will have to tread."

Southern Baptist Organizations Release Small Group Curriculum On Religious Liberty

Two Southern Baptist organizations have partnered to create a curriculum designed to equip local churches with what they call a "more informed" understanding of religious liberty.

The six-week long curriculum, called "Religious Liberty: How the Gospel Shapes Our First Freedom," was released online by the Southern Baptist Convention's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ERLC) and LifeWay Christian Resources. The resources range from four dollars to 30 dollars on the LifeWay websi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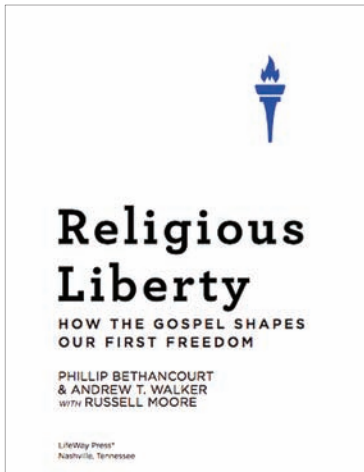
"Our goal in producing this curriculum is to equip churches to see religious liberty as it is — grounded in the gospel," said ERLC's president Russell Moore in a statement.

The introduction to the study states two main reasons that religious liberty is to be studied.

"First, the Bible teaches that individuals each possess a conscience. Allowing someone to live faithfully to their conscience — even when a person is wrong — protects the integrity of their religious choice. Even more so, being wrong is why we need a Savior," the study states.

"Secondly, religious liberty is often misunderstood, so educating ourselves about this historic principle will benefit you and the society we live in," it continues.

The study is designed to take place in a small group setting for one hour in each meeting. It in-



LifeWay Christian Resources and the SBC's Ethics &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collaborated to publish a small group curriculum on religious liberty. (Photo: Screenshot of sample curriculum)

cludes discussion questions, video clips of some 70 pastors and scholars who were interviewed on the topic, individual studies, journal spaces with questions, and articles that have been written on religious liberty.

Videos include interviews with pastors and leaders such as Mark Dever, the senior pastor of Capitol Hill Baptist Church; Matt Chandler, the lead pastor for teaching at The Village Church; and Robert George, professor at Princeton University.

Religious liberty as it relates to the culture, the Bible, mission, and the common good are among the topics explored in the study. Objections to religious liberty are also discussed.

How Can Christians Participate in Combating Persecution in North Korea?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to host conference featuring leaders of church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For the second time,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ICC) will be hosting its annual conference spotlighting a specific region in which Christians are facing severe persecution. This year's conference, which is taking place from June 2 to 3 at Saddleback Church, will focus on North Korea.

The conference, called The Bridge, will feature leaders of churches, non-profit organizations, and government agencies.

Among those invited to speak include Rick Warren, founder and pastor of Saddleback Church; Florida Senator Marco Rubio; Suzanne Scholte, president of the Defense Forum Foundation; David Curry, CEO of Open Doors USA; Mervyn Thomas, CEO of Christian Solidarity Worldwide; North Korean defector and TED Talks speaker Joseph Kim; and North Korean defector and author Hyeonseo Lee, among others.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which has done work aiding, advocating for, and spread-

ing awareness of the persecuted Christians around the world for some 20 years, decided to begin hosting these annual conferences called The Bridge with hopes that there would be greater collaboration between the various influencers in addressing the problem of persecution, including those working on the field, churches, government agencie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according to ICC's president Jeff King.

Though each group plays a crucial role in providing the resources that the persecuted church needs, King said, even more could be done if those groups could work together.

North Korea in particular is a nation in which Christians are severely persecuted to the point that "it falls into a different category and people just forget about it because it seems so unfixable, so beyond what anyone can do," according to King.

Yet King expressed hopes for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Many people would say in terms of geopolitics, Korea has been a pawn. It's been brutally oppressed and ruled over," said King. "But I say no, I don't even think this is a coincidence. She is the chosen one, she is the bride."

He added that in his conversations with defectors and experts on the region, many express hopes that "we're getting to the end" of the Kim regime.

"Their great hold on power is the ideology and propaganda," King said, "and that system is failing rapidly because of the modern world, with the internet and the information flooding into North Korea ... The average North Koreans now know their leader is a dictator, that he is not in any way a good guy, and that they are not the most amazing country in the world. That's incredibly destabilizing."

"There are so many things you can do to get the gospel in, and to help the victims who are coming out," King continued, adding that the hope of the conference is to highlight those action



An attendee of last year's 'The Bridge' conference raises her hands in worship. This year, the ICC will host The Bridge from June 2 to 3. (Photo courtesy of International Christian Concern)

points.

Sessions will discuss the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for Christians in North Korea, how churches could be involved in combating persecution, and how Christians could bring the gospel into the country, among other topics. All sessions will have translations available in Korean.

Numerous Korean American organizations are participating in the conference, including Je-

sus Awakening Movement for America, Bethel English Church, Grace Ministries International's English ministry, and Holy Wave, the English ministry of Sa-Rang Community Church.

A separate 'Policy Day' will also be taking place on May 24 in Washington, D.C., and will focus mostly on combating the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For more information, visit thepersecutionconference.org.

Good Neighbors USA to Join Korean Churches in Worship

Aiming to partner with the Korean churches in Southern California, Good Neighbors USA will seek them out where they're at by personally joining them in their worship services.

Called 'Sharing the Love Worship Night,' the campaign will involve staff of Good Neighbors visiting various churches' Wednesday night, Friday night, or Sunday services (or other gatherings during the week). The staff are open to visiting not only church gatherings, but also meetings of other non-profit organizations. A unique characteristic of the campaign is that the organization aims not to

make its own plans and schedule, but to follow that of the churches and organizations which request their program. Hence, the staff can make themselves available even for early morning services, and any other gatherings throughout the week.

During the service, the staff will present a short video on the lives of young children in impoverished nations, and will set aside a time for attendees to commit to support the work that Good Neighbors does in those nations.

Good Neighbors was established in South Korea in 1991. The organization has 185 offices

in 35 countries, and provides humanitarian assistance. It offers a chance for members of churches to go on overseas mission trips with Good Neighbors staff, and also offers opportunities for those who sponsor children through the organization to personally meet them.

The non-profit engages in various projects to offer aid around the world, including child sponsorship; building clean water wells; building cookstoves that are energy efficient and make the air safe to breathe in Guatemala; and providing food for children in Malawi, among other projects.



Good Neighbors USA provides aid in various ways, including building clean water wells.

Local Churches and Ministries

Christianity Daily

A ministry through journalism

For questions about advertising and donations
T.(213)739-0403 F.(213)402-5136

Sunday Celebration Services: 9 AM & 11 AM
Wednesday College Fellowship: 7 PM

PASTOR JUSTIN KIM

Bethel English Church

18700 Harvard Ave, Building C, Irvine, CA 92614
T. (949) 385-3051 / www.ocbethel.com



Sunday Services: 9:30 AM & 11:30 AM
Sunday School: 11:30 AM
College Group Meetings: Fridays at 6 PM

PASTOR SUNG CHANG

Charis Mission Church

5005 Edenhurst Ave, Los Angeles, CA 90039
T. (818) 549-9191 / www.charis.church



Placentia Site Sunday Services: 10 AM
Artesia Site Sunday Services: 11:30 AM, 12:45 PM

PASTOR HAROLD KIM

Christ Central of Southern California

Artesia: 11841 178th St, Artesia, CA 90701
Placentia: 500 Bradford Ave, Placentia, CA 92870
T. (562) 246-0363 / www.christcentralsc.com



Nevada Legislature Introduces Bills Expanding Contraception Coverage in Employee Insurance

Two bills have been introduced in the Nevada Legislature that would require employers to expand contraception coverage in the medical insurance they provide for their employees, regardless of the religious background of the employers.

Assembly Bill 249 and Senate Bill 233 were heard in the Assembly and Senate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ttee early this month.

Current law allows businesses to be exempt from covering contraceptives for its employees on the basis of religious conscience. In 2014, the U.S. Supreme Court said in a 5-4 ruling that businesses that are operated with a few individuals are allowed to choose not to cover employees' birth control.

The newly introduced bills, mainly sponsored by three Democratic members of the Legislature, aim to take those exemptions away, and would also expand the coverage that insurance can provide.

For instance, whereas currently individuals can receive a limit of 90 days of birth control prescriptions, the bill aims to expand that to a years' worth of prescriptions maximum. The bill introduced in the Senate would also require that the employer-provided insurance covers screenings for diabetes, prenatal tests, and counseling



The Nevada Legislature building located in Carson, pictured in 2007. The state's Assembly and Senate introduced bills expanding contraception coverage in employee health care. (Photo: Dave Parker / Wikimedia Commons / CC)

for domestic violence, among other things.

"My goal is to make sure that as many women as possible have access to the health services that they need," said Senator Julia Ratti (D-Sparks), who sponsored SB 233.

However, the bills are being opposed by some conservatives, who say that they are infringing on employers' religious liberty.

"We are very concerned about the slippery slope we are now on in this state of the erosion of religious liberty," said Janine Hansen, the state president of Nevada Families for Freedom, during the Assembly Health and Human Services Committee meeting.

Currently, four other states allow patients to receive 12 months of birth control prescriptions.

Dozens of Korean Missionaries Expelled from China

Reports say 32 missionaries from Yanji region were expelled; reasons unclear

China has expelled numerous Korean missionaries in recent months, according to media reports.

The Chinese government expelled 32 Korean missionaries from Yanji, South Korean media sai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onfirmed that these missionaries had been arrested, according to Bretibart.

Some were expelled after officials raided their homes and simply asked them to leave the country, Agency France-Presse reported.

"In the past, most missionaries were given a month to leave since their activities in China were not

harming the country. This time, it was different," one source told the Financial Times.

Though it is unclear exactly why the country decided to expel the missionaries, officials reportedly cited problems with their visas.

Some say that the expulsions may have come in response to rising tensions amid South Korea's support for the U.S. military's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 system (THAAD), while others point to the increasing crackdown on Christians and church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had been carrying out, such as by taking down the church-

es' crosses.

"There was no official explanation from China," one anonymous official told Reuters. "There is no confirmation that it is related to Thaad."

Tensions have grown in China for Christians since 2015, when the government increased scrutiny on churches. Over the past few years, many house churches have been closed down, crosses of churches have been taken down, and Christians and activists have been detained.

Many missionaries in China specifically focus on providing aid to North Koreans who flee from their home country into China.



Samaritan's Purse offers humanitarian aid in various ways, including by providing food, medical aid, and disaster relief. The group provided food for residents in the Mayendit region of South Sudan, but pulled back its efforts in February amid rising levels of violence in the area. (Photo: Samaritan's Purse)

Samaritan's Purse Staff Released From Detention in South Sudan

Eight native staff members of Samaritan's Purse were released from detention in South Sudan on Tuesday.

The staff were reported to have been abducted by rebel forces on Monday in the Mayendit region, and some reports even mentioned that the kidnappers requested food as ransom.

However, Samaritan's Purse denied that there was any ransom request, and clarified to Voice of America that the staff were detained, rather than abducted.

"They were clearly held against their will, but we do not see it as a kidnapping," Ken Isaacs, vice president of programs and government relations at Samaritan's Purse, told Voice of America.

The rebel forces also denied on Tuesday that they kidnapped the Samaritan's Purse staff, who are also residents of the Mayendit area.

"These aid workers are supporting the community and these communities are in liberated areas. So, how should we even abduct someone who

supports you?" Lam Paul Gabriel, a deputy rebel spokesman, told Reuters. "It is unreasonable to do that. It is just a matter of branding us as bad people."

Samaritan's Purse released a statement on Tuesday expressing gratitude for the safety of the staff.

"Samaritan's Purse is thankful to God for the safe release of our South Sudanese national staff, who had been detained by armed personnel in the Mayendit area of South Sudan," the group said.

"There was no ransom request, and the previously detained staff members are now in a safe location," the statement continues. "We are grateful for the World Food Programme's support in helping us relocate them."

According to Samaritan's Purse, the group had been active in providing food to the people residing in the Mayendit region for over two years, but pulled out its local staff two weeks ago after the group feared violence would come in the area.

In the month of February, the local

staff in the Mayendit area provided food for more than 100,000 people, the organization said.

Meanwhile, the nation of South Sudan has been undergoing a violent civil war, and the United Nations declared recently that it is also in a state of famine.

In February, the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of the United Nations (FAO), the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and the World Food Programme (WFP) stated that as many as 5 million people may face extreme food shortages by the summer if they do not receive aid.

The violence in the South Sudanese villages has hindered efforts in providing food aid as well, according to Samaritan's Purse.

"Because of local fighting in the [Mayendit] region, we have had to temporarily halt our food distributions," the group stated. "Please pray that God will enable us to restore our teams back to Mayendit and resume ministering to the physical and spiritual needs of the people there."

Sunday Services: 9 AM, 11 AM, and 2 PM
Youth Services:
Sundays at 11 AM, Fridays at 7:30 PM
Sunday School: Sundays at 11 AM

PASTORS DAVID LEE & SUNG HONG

Cornerstone Church

24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
T. (310) 530-4040
www.cornerstonetv.com

Sunday Services: 11:30 AM

PASTOR HENRY LEE

Crossroads Church

1750 N. Edgemont St, Los Angeles, CA 90027
T. (323) 913-4499 / www.crclafgc.com

Brea Campus Service Times: 9:30 AM, 11:30 AM
Irvine Campus Service Time: 10:30 AM

PASTOR STEVE CHOI

Crossway Community Church

Brea: 695 Madison Way, Brea, CA 92821
Irvine: 100 Honors, Irvine, CA 92620
T. (714) 529-5551 / crossway-church.com

EM Sunday Service: 12:00 PM
Children's & Youth Services: 10:30 AM
Friday Night Bible Study (Jr. High - Young Adults): 7:30 PM

PASTOR JAMES KWAK

First Presbyterian Church of OC

8500 Bolsa Ave., Westminster, CA 92683
T. (714) 891-2029 / www.oc1church.com

Sunday Service: 9:30 AM
Children's and Youth Services:
11:30 AM on Sundays, 8:00 PM on Fridays

PASTOR RONNIE PARK

Good Stewards Church

2701 S Woodgate Dr, West Covina, CA 91792
T. (626) 913-6611 / www.gschurch.org

Sunday Services: 1:30 PM
Children's Ministry: 11 AM
Friday Worship: 7:30 PM
Dawn Prayers: 5:30 AM Tu-F; 6:30 AM Sat.

PASTOR WON LEE

Gospel First Korean Baptist Church

8132 Garden Grove Bl, Garden Grove, CA 92844
T. (714) 799-5673 / email: 8132gospelchurch@gmail.com

Sunday Services: 9 AM & 11 AM
Bible Studies: Wednesdays at 7 PM
Prayer Meetings: Tuesdays at 11 AM, Saturdays at 9 AM

PASTOR SAM KOH

Hillside Church

2241 N. Eastern Ave, Los Angeles, CA 90032
T. (323) 909-9062 / www.hillsidel.org

Sunday Services: 9:45 AM

PASTOR PHIL KIM

The Home Church

19271 Colima Rd. Suite A/B, Rowland Heights, CA 91748
T. (626) 384-1393 / thehomechurchrowland.com

Sunday Services: 11:45 AM

PASTOR DAEVID YOON

Inland Church

1101 Glen Ave, Pomona, CA 91768
T. (909) 622-2324 / inlandem.org

Sunday Services: 2 PM

PASTOR SUNGWON 'SJ' JAHNG

LA Open Door Community Church

3281 W 6th Street, Los Angeles, CA 90020
T. (213) 986-8496 / www.laopendoor.church

Sunday Services: 9 AM & 11 AM
College Group Meetings:
Sundays at 12:30 PM, Fridays at 8 PM

PASTOR STEVE CHANG

Living Hope Community Church

1215 W. Lambert Road, Brea, CA 92821
T. (562) 694-2100 / www.livinghopecc.org

Sunday Services:
8:30 AM, 9:45 AM & 11:15 AM

PASTOR PAUL KIM

Redeemer Presbyterian Church

1831 South El Camino Real Encinitas, CA 92024
T. (760) 753-2535 / www.redeemersd.org

Sunday Services: 1 PM
Youth Group Services:
Sundays at 11 PM, Thursdays at 7 PM

PASTOR DANIEL HAN

Restore Fellowship

2525 James M. Wood Blvd, Los Angeles, CA 90006
T. (213) 487-3920 / www.ladongsan.com

Broadway Campus Sunday Services:
9:45 AM, 11:15 AM, 12:45 PM
Jefferson Campus Sunday Services:
9:30 AM, 11:30 AM

PASTOR MICHAEL LEE

Young Nak Celebration Church

Broadway: 1721 North Broadway, LA, CA 90031
Jefferson: 150 W. Jefferson Blvd., LA, CA 90007
T. (323) 227-1414 / www.ynccla.org

특별 이벤트

PRO-Z USA에서는 그동안 여러분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특별 이벤트를 실시하오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소중한 분들에게 선물하세요

한병 더

절호의 찬스



지금 구매하시면!

3병 + (1병 Free)

\$267 + Tax

* 가까운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입하세요!

프로지 골드

PRO-Z GOLD

당뇨! 당뇨는 원인치료가 해답입니다!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이 강화된 PRO-Z GOLD



방송인 송해 선생님의
건강지킴이, 프로지골드

당뇨병의 원인

아연은 우리 몸의 대사작용을 하는 필수 미네랄로 인슐린의 저장 및 분비에 필수적인 성분입니다. 아연이 부족하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이 저하되어 당뇨병을 유발하게 됩니다. 인슐린의 저항성을 낮추어 분비된 인슐린이 제 기능을 하도록 도와줍니다.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 기능과 식후 혈당 상승 억제 기능이 강화되었습니다.



문의
전화

213.434.1170

621 S. Virgil Ave. Suite 260 Los Angeles, CA 90005

www.prozusa.com / prozusa1@gmail.com

PRO-Z USA Inc.

미국 공식 판매처